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8 2018

VOL. 266

haninnewsinni@gmail.com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최를
축하합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alaxy A6 | A6+

**MAKE
THEM
LOOK**

**Bokeh Effects with
Dual Lens Camera***

More Info:
www.GalaxyASeries.com

*Dual lens camera hanya tersedia pada Galaxy A6+

Customer Service: 0800-112-8888 (bebas pulsa) (021) 5699-7777 (hunting)



www.samsung.com/id



Samsung Indonesia



SamsungID



Samsung_ID



Samsung Indonesia

대한항공과 함께 한국의 사계절을 경험해 보세요

출발	도착	편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요일	기종
자카르타	서울	KE628	2205	0715*	매일	77W
서울	자카르타	KE627	1530	2030	매일	77W

* KOREAN AIR ALSO OPERATES FROM DENPASAR DAILY TO SEOUL & BEYOND



더 많은 정보는, 가까운 대한항공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Jakarta : 62-21-521-2180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SAINT JAMES



FACTORY OUTLET



Marketing Office : (021) 5010-4557/58/59

 saintjamestableware

PT. Prime Freight Indonesia

Alive People, Alive Service



PRIME
FREIGHT INDONESIA

- ▶ Ocean Freight
- ▶ Air Freight
- ▶ Customs Clearance
- ▶ Tri Angle Service
- ▶ Cargo Insurance
- ▶ Door to Door Service
- ▶ Logistic Consulting

인도네시아 취항 17개 항공사 및 주요 운송지역의 450여 파트너사와 함께 빠르고 정확하며 합리적인 운송을 약속 드립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운송서비스, 프라임 인도네시아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KOREAN AIR CARGO

ASIANA CARGO

中華航空
CHINA AIRLINES

Garuda Indonesia

AIR FRANCE
KLM CARGO

터키항공
TURKISH CARGO

Gulfair
your business

الخطوط السعودية
SAUDIA CARGO

Emirates
SkyCargo

الخطوط العمانية
OMAN AIR

الإتحاد
ETIHAD CARGO

CATHAY PACIFIC
CARGO

Vietnam Airlines
CARGO

QANTAS

MIHNI JANKA
Iran Air

Lufthansa Cargo

a unique voice. Yours.
Lufthansa Cargo
Networked the world.

Philippine
Airlines

QATAR
CARGO

PT. PRIME FREIGHT INDONESIA

PRIME JAKARTA 6F. Wisma Korindo, M.T. Haryono Kav. 62, Pancoran, Jakarta 12780, Indonesia TEL : +62 21 799 6361

PRIME BALI 2F. PELNI Building, Jalan Raya Kuta No 299, Tuban Bali 80361, Indonesia TEL : +62-361 4753 667

PRIME KOREA (주) 프라임 운송 Prime Freight Service Co., Ltd.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11층 TEL : +82 2 338 9425

www.primef.co.kr / www.primef.co.id



PT. TAEWON INDONESIA

양영연 회장



**PT. PRATAMA
ABADI INDUSTRI**

서영률 회장



**PT. HANINDO
EXPRESS UTAMA**

신기엽 대표



**PT. POWERTECH
INDONESIA**

전민식 대표



**민주평통자문회의 동남아
남부협의회(인도네시아)**

송광종 회장 외 자문위원



**PT. LEMBUSWANA
PERKASA**

강덕재 회장



**PT. PARKLAND
WORLD INDONESIA**

신만기 대표



PT. KMK GROUP

송창근 회장



**PT. SUNG CHANG
INDONESIA**

김영울 회장



PT. LEO KORINSIA

이종현 대표

**PT. CIPTA ORION
METAL**

김준규 대표



**PT. DONG JUNG
INDONESIA**

조규철 대표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강호성 대표

환영! 2018 아시안게임 대한민국선수단



PT. SHINTA WOO SUNG
최덕열 대표

PT. VICTOR JAYA RAYA
이호덕 회장



PT. KORINDO GROUP
승은호 회장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박태용 회장



봉제협의회(KOGA)

총 14업체 :

- PT. BUSANA PRIMA GLOBAL 박재한 회장
- PT. MUARA TUNGAL 최중섭 사장
- PT. DOOSAN CLOBAL 배도운 사장
- PT. STAR CAMTEX 김주철 사장
- PT. JM TECH 문영권 사장
- PT. INCORDAN 하민수 사장
- PT. DASAN 서기선 사장
- PT. HANSOL 김선 법인장
- PT. SUNGBO 이진수 사장
- PT. ANUGERAH ABADI 유웅근 사장
- PT. PAN-PACIFIC 이규백 회장
- PT. GORI 이세호 사장
- PT. ASRINDO 김건우 사장
- PT. JA JAKARTA 정해용 법인장



**PT. CHANG SHIN
INDONESIA**
서영석 법인장



PT. HUNG A INDONESIA
정용완 대표



**BANK HANA
INDONESIA**
이화수 회장

PT. KOIN BUMI
김우재 회장



**PT. HWA SEUNG
INDONESIA**
김광현 법인장

PT. TECHNOLOGY
강희중 대표



IBK 기업은행
김도진 은행장

YONG MA

YONG MA
마용도 회장

납입일 순

남북한 간일림의 선전을기원합니다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 양영연

편집인 : 전민식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 메 일 :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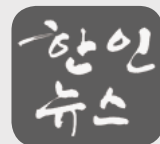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작정을 하고 떠났던지 아님 떠밀려왔던지,
타국에 사는 우리에게 손님맞이는 필수입니다.
공항을 오가고 가이드가 되고
일정을 맞추고 내 공간을 내어 주며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내 것을 나눕니다.

하물며 한인회에 몸을 담고 있는 저로서는
새로운 얼굴의 손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8월18일에 열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또 한번 평화의 상징이슈가 될 우리가
이번엔 어떤 길을 만들어낼 지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선수들이 활약할 주요경기일정도 확인하며
곧 들이닥칠 새로운 얼굴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차 례

- 10 논설위원 칼럼 <김문환>
- 12 신성철 칼럼
- 14 편집위원 칼럼 <황윤홍>
- 16 옥죄지 않아야 창의성나래가 펼쳐진다 <고승철>
- 18 이해창 경제칼럼
- 20 집중! 이 사람 / 이회경대표
- 22 ANEKA MASAKAN KOREA <양소연>
- 26 비상약<편집부>
- 29 JIKS 소식
- 30 배동선 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 34 월간뉴스브리핑 <자카르타경제신문>
- 38 주요 종목 경기 일정표
- 42 자카르타 맛집탐방 <주윤지>
- 44 건강칼럼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 46 행복에세이 <하연수>
- 50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인도네시아어 <박경재>
- 54 적도! 뜨거운 태양의 심장을 선물 받다 <김동걸>
-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263) <이승민>
- 61 까끼리마 <류제천>
- 65 JIS 소식 <신재우>
- 69 생활정보

한인사회 이모저모

- 2018 아시안게임지원 민관 합동위원회 출범 25
- 우리가 몰랐던 인도네시아 이슬람 39
- 민주평통, 아시안게임지원 특위 출범 40
- 김준규시인 신인상 수상 49
- 인도네시아 고용허가제 근로자 발대식 62
- 2018 안전교육 실시 63



Gelora Bung Karno (GBK) Senayan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IG:@dqdoodle]



우리들의 영웅



김문환/논설위원

8월이 되면 유독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2004년 8월 29일 사망한 베니 무르다니 장군이다. 떠난 지 14년이 되었는데도 현 정권실세들의 행보 뒤에서 투영되어 나오는 그의 존재를 인지하게 됨은 하나의 미스터리이기도 하다. 특히 그가 한인사회가 발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한인사회에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 할 것이다. 20년 전만 해도 불모지나 다름 없었던 파푸아지역의 동녘 끝으로 내려가면 머라우케(Merauke)라는 군청소재지가 나오는데 그

곳까지도 베니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수하르토 군부시절인 1989년도에 세워진 이 기념상이 이곳에 위치한 이유는 바로 1962년 무력침공에 의해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에 편입된 서부이리안(Irian Barat) 분쟁 때문이었다. 수카르노 정부는 서부이리안을 편입시키기 위해 ‘만달라작전(Operasi Mandala)’을 수립하며 총사령관에 수하르토 소장을 임명하며 구체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한다. 네덜란드인들의 주요거점인 비악 지역에 대한 본진 공격을 앞두고 관심을 분산

시키기 위해 외곽지역에 먼저 공수부대를 투하한다. 선공부대인 베니 대위 휘하의 특전사 및 동부자와 병력 215명이 6월 24일 머라우케 지역에 낙하하였으며, 두 달 뒤인 8월엔 운퐁 소령이 이끄는 중부자와 병력 141명이 팍팍(Fak fak) 인근 까이마나(Kaimana)에 낙하한다. 많은 희생자를 내고 낙하한 병력들이 울창한 밀림 속에서 악전고투하는 사이 마침 유엔중재를 통한 화평안이 결실을 보아 종전을 맞게 된다. 이 당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베니 대위의 족적을 기리고자 그곳에 기념비가 건립된 것이다.



Patung LB Moerdani di Merauke

자카르타 중심 의전도로인 수디르만, 땀땀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도로중간에 우뚝 서있는 몇몇 동상들을 지나치게 된다. 우선 땀땀가에서 수디르만가로 이어지는 길목 한가운데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오버코트 차림에 자바전통식 모자를 쓰고 왼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오른손으로 거수경례하는 수디르만 장군의 동상이 드러난다. 수디르만은 1945년부터 4년 반 동안의 대 네덜란드 항쟁기에 중부자와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게릴라전을 펼치다 종전 한달 만인 1950년 1월말에 폐렴으로 사망한 전설적 인물이다.

폐렴말기의 쇠락한 몸을 이끌고 고산지대를 들것에 실려 넘나들다 보니 두터운 의복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수하르토 군부의 그림자가 견혀진 2003년, 수디르만 동상이 건립될 당시 그 위치를 놓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 대사령관(Panglima Besar)으로 호칭되며 국군의 아버지인 수디르만의 동상을 길거리 아무 곳에나 세워둘 수 없다는 것이다. 보다 신성하고 존경을 표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으나 결국 유가족이 나서 논쟁을 불식시켜 현재 위치게 그대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Patung Jend. Sudirman di Jakarta

항쟁기간 중 수디르만이 주로 중부자와를 총괄하였다면 반동을 거점으로 한 서부자와 방어임무는 나수피온 장군이 담당하였다. 수디르만의 급서로 인해 공백이 생긴 군부지휘권은 나수피온이 장악하여 1950년대 내내 온갖 분쟁, 내란을 수습하며 정치적으로도 수카르노와 맞먹는 위상에 올라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결국 1965년 9.30쿠데타 사건을 불러오게 된 것이다. 나수피온의 족적은 자카르타 중심부 멘렝지역에 건립된 ‘나수피온 박물관’에 그의 반신상과 더불어 갖가지 유물들이 보존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영웅적인 인물들에 대한 기념유적을 다녀보았지만 국가권력 심장부 앞에 조성된 모나스광장엔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독립기념탑이 세워져 있고, 자카르타 관가와 상업중심부가 연결되는 호텔인도네시아 앞 분수대에는 ‘환영동상(Patung Selamat Datang)’이 복녘을 가리키고 있다. 56년 전인 1962년 제4회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즈음하여 남녀가 오른손을 들고 여성은 왼손에 꽃을 지닌 채 선수들을 환영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당시 저명한 화가이며 현직 부주지사였던 헝크(Henk Ngantung)가 직접 작업한 스케치를 근거로 기념탑이 제작되었다.

수디르만가가 끝나는 스나얀 분수대에 이르면 강력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역동적인 동상이 가로 막는다. 공식적으로는 ‘건설청년상(Patung Pemuda Pembangunan)’이라고 부르나 모습을 빗대어 ‘핏자상(Patung Pizza Man)’이라고도 칭한다. 근육질의 한 청년이 반라의 모습으로 불꽃을 들고 전진하는 모습은, ‘청년들이여! 불꽃정신으로 민족의 역군이 되어 국가발전의 간성이 되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한다. 1972년에 완공된 이 동상 제작비는 당시 입누 수또워(Ibnu Sutowo) 총재의 국영석유공사(Pertamina)가 충당하였다.

베니 무르다니 장군의 14주년 기일을 맞아 머라우게 기념상 이야기를 거쳐 몇몇 인도네시아 국가영웅들의 족적을 훑어보는 사이, 필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맞게 된다. 어언 반세기가 지난 우리 한인사회의 연륜이 그저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깔리만탄의 정글과 수마트라의 벌판에서 시작하여 오늘날의 기술, 자본집약산업에 이르기까지 거처온 파노라마가 영화 촬영하듯 그렇게 만들어졌던가? 희생을 감수하며 피땀 흘린 선구자들의 흔적은 지금 어디에 남아 있는가? 땅거미가 더 짙어지기 전에 우리들의 영웅들을 재조명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때라고 생각된다.

■ 아시안게임 흥행 키워드 ‘코리아’

남북공동입장, 남북단일팀 구성,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주목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의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

글 :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남북한 선수가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 입장하게 될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하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개막이 성큼 다가왔다. 오는 8월 18일 개막하는 제18회 아시안게임에 남북 단일팀이 출전함에 따라 ‘코리아’가 주요한 흥행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도 코리아를 주요 흥행 요소로 보고 적극적으로 코리아 활용에 나섰다.

국제종합경기에서 남북단일팀 출전은 지난 2월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 이어 두 번째이고,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여자농구와 카누 드래곤보트, 조정 등 3개 종목에서 단일팀이 구성돼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메달 경쟁에 나선다. 자카르타 대회는 4년전 인천 대회 보다 4종목 더 늘어난, 40개 종목을 치르며 출전 선수도 지난 대회보다 1,800명이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6회 연속 종합 2위에 도전하는 우리나라도 39개 종목에 960명의 선수를 파견한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아시아 45개국을 대표하는 1만여명의 선수가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펼친다. 이중 가장 주목받는 종목은 주최국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남자축구다. 저조한 티켓 판매율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대회조직위원회는 손흥민의 출전이 확정되자 환호하는 모습이다. 지난 7월 20일께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의 전체 티켓 판매율은 20% 남짓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슈퍼스타 손흥민과 한국팀이 활약할 남자축구에 희망을 걸고 있다.

또 다른 흥행코드는 남북정상회담이다.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대통령은 특사로 랫노 마르수디 외교장관을 파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시안게임 공식 초청장을 전달했다. 북한에도 특사를 파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아시안게임에 초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김 위원장이 참석한다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자카르타에서 성사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북한이 연일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제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꺾꺾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남북정상이 나란히 선다면 아시아인의 눈과 귀가 자카르타에 쏠릴 것이고,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 아시안게임’이 성사돼 대회의 가치를 한층 높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다자외교와 외교적 중재역을 통해 중국, 미국, 일본 등 강대국을 견제하고 싶어하는 인도네시아로서는 이를 입증할 좋은 기회다.

현지 한인들도 ‘남북한 단일팀의 출전 축하 및 2018 아시안게임 성공 기원 평화 퍼레이드’를 개최한다. 인도네시아 주재 남한과 북한 대사와 교민들이 한반도기를 들고 행진하게 될 평화 퍼레이드는 8월 5일(일) 자카르타 중심대로인 수디르만 거리에서 열린다. 한국인으로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합의 장이 되길 기원하고, 거주국인 인도네시아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얻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개최국도 아니면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흥행코드가 되는 것일까? 외교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함이고 경제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얼마 남지 않은 준비 기간과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아시안게임 성공과 남북정상회담 성사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조꼬위 대통령 입장에서 내년 4월로 예정된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경기장과 대회운영시스템을 완성하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불러와야 한다. 아시안게임 대회기간과 이후에도 #아시안게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코리아 #남북 단일팀 #남북정상회담 #손흥민 등이 흥행코드가 되어서 세계인에게 각인되기를 기대한다.



이슬람 문화 이해 '결혼 제도'

글: 편집위원 황윤홍

이슬람 결혼제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 ~ 일부다처제” 일 것이다.

남녀 평등 관점에서 보면 여성 경시 비판이 세차게 일어 날만 하지만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배경이 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슬람 결혼제도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면도 있는데 ‘인간이란 원래 약한 존재이다’라는 철학을 깊이 깔고 있다.

유사 이래 현재의 결혼 제도가 정착된 것은 약 150여년 정도로 지금의 ‘일부일처’ 제도는 기독교가 세계로 퍼지며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슬람 국가 중에는 서구 결혼제도가 아직 받아 들여지지 않고 현재도 일부다처제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가도 있다.

이슬람 신자에게 결혼은 꼭 해야만 하는 의무 조항이 아니고 중요한 덕목이자 선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결혼은 신앙의 절반’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무슬림에 있어 결혼은 신앙과 함께 생의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다.

무슬림에게 결혼이란

꾸란에는 부부와 배우자를 일컫는 [Zawj]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결혼의 뜻도 가지고 있다. 이슬람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핵은 가족이고 이 가족을 구성하는 유일한 방법이 결혼이다.

[Zawj]의 중요한 목적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상호 협력하여 인생을 꾸려 나가면서 동시에 자식

들도 훌륭한 무슬림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알라신에 대한 숭배라고 믿고 행동한다.

무슬림의 결혼은 남녀간 신성한 계약

무슬림 결혼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 의사를 바탕으로 [Ijab] 라고 불리는 남성측의 청혼을 여성측이 [qubul -수락] 하면 [Aqd Nikah]라는 혼인 계약이 성립한다.

Ijab과 qabul 이라는 단어는 원래 상거래에 사용되는 용어로 이슬람에서 결혼은 연애의 연장선이라기 보다는 신성한 계약의 의미가 진하게 깔려 있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성립된다.

1. 남녀 쌍방의 구두, 서면 동의 하에
2. Mahr 이라는 신랑측의 결혼준비금이 신부측에 전달되고
3. 최소 성인 무슬림 2인 이상의 증인과
4. 결혼하였음을 주변에 널리 알리기 위한 피로연 개최

혼인 계약서인 Aqd Nikah 에는 신랑측의 결혼준비금 Mahr 금액과 이혼시에 부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도 함께 기재 된다. 통상 이혼시 지급할 금액은 결혼 준비금 보다 높아 이혼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Mahr은 사별이나 이혼 시에도 신랑측에 반납 되지 않고 신부의 사유 재산으로 인정된다.



Mahr은 보통 현금이지만 토지나 보석으로도 준
비되며 개인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Mahr에 상한선은 없지만 최저 금액은 남편과 사
별하거나 이혼시 남겨진 부인의 최저 생활이 유지
될 수 있는 정도라야 한다.

이슬람교가 일부다처제를 적극 권장하는 것은 아
니고 인정 할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슬람교 성립 시기인 7세기 전반 아라비아 반도
에서 전쟁과 혼란 와중에 많은 전사자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기 위한 복지 제
도로 실시되었다. 그 후로도 이슬람 신자 확대와
간통 방지 차원에서 계속 인정 되어왔다. 따라서
현대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이면 누구나 ‘일부
다처제’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
못된 것이다.

일반 무슬림의 경우 4명까지 부인을 맞이 할
수 있는데 남편은 모든 부인을 평등히 보호 부양
할 의무가 주어진다. 남편이 동 의무를 태만히 하
고 차별 대우를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되고 배상을
하여야 한다. 사실 모든 부인을 동등하게 보호,

대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혼수 마련도 만
만치 않아 현재는 극소수에 한정되는 제도가 되었
고 대다수의 무슬림은 일부일처제를 택하고 있다.

이슬람의 이혼

이슬람교에서도 이혼이 인정 된다. 이혼 방법은
국가별로 다른데 잘 알려진 방법으로 남편이 부
인에게 이혼을 의미하는 딸락 (Talaq) 이라는 단
어를 3회 선포하면 일방적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데 무슬림의 80%가 이 방법을 사용한다. 최근
동 제도는 여성 경시라는 비판이 전세계에서 거
세게 일고 있다.

세계의 통계를 보면 이슬람국가의 혼인율은 서
구제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이혼율은 아주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 결혼 방식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서구 결혼 방식에 비해 뭔가 뒤떨어 질 것
이라는 생각에 대해 이슬람 관계자는 말한다.

‘남녀가 수년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며 서
로가 이제 충분히 이해하여 결혼에 이르렀다 하더
라도 이것이 한평생 결혼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로맨스와 멋진 사랑의 언어가 결코
백년해로와 직결 되는 것이 아니 듯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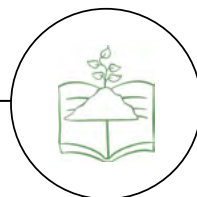
결혼식 피로연은 결혼 성립 4대 조건 중에 하
나로 매우 중요한 예식이다. 우리 직원이 새롭게
가정을 꾸미며 소중한 자신의 일터에 외국인 상
사에게 수줍게 전달하는 청첩장을 받으면 시간들
내어 참석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옥죄지 않아야 창의성 나라가 펼쳐진다

흔히 선진국에서 자녀를 키운 부모들은 한국학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문제점을 꼬집는다. 예를 들면, 미국 교사들은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여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경청하는데 비해 한국 교사들은 “쓸데없는 질문으로 수업분위기를 흐리지 말라!”고 편견을 준다는 것이다. 그런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면 선진국은 교육 천국이요 한국은 교육 지옥인 것처럼 고착된다. 그러나 사례별로 냉철히 따져야 한다. 선진국에도 허점은 수두룩하고 한국 교육제도의 장점도 적잖다. 다만, 우리교육이 개개인의 장점과 다양성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생산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거대한 공장의 기계부품처럼 획일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물론 놀고먹을 수는 없다. 뭔가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왕이면 더욱 쓸모 있는 상품이나 예술품을 빚어 내려면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개인이 개성을 발휘하며 사람답게 살 때에야 창의성과 상상력이 극대화되어 인류를 위해 역설적으로 더욱 ‘생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글; 고승철(소설가)



피아노, 등산... 획일성의 상징

필자는 1990년대 초에 프랑스에서 4년, 미국에서 1년 가까이 산 적이 있다. 귀국해서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들어갔고, 딸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아들은 몇 년 사이에 프랑스, 미국, 한국의 초등학교 생활을 골고루 경험하게 됐다. 아들녀석은 프랑스에서 쓰던 큼직한 책가방을 메고 한국 학교에 갔다. 그 가방이 한국 아이들 눈에는 기이하게 비쳤나보다. 자기들 가방은 알록달록한 색깔의 자그마한 것인데 외국에서 전학 왔다는 친구의 것은 거대한 풍뎅이 모양이어서 이상했다. 아이들은 ‘풍뎅이 가방’의 주인을 마구 놀렸고 아들의 마음 한 구석엔 작은 상처가 생겼다. 음악 실기시험은 피아노 연주였다. 아이들은 바이엘 교본에서 배운 대로 능숙하게 건반을 두드렸다. 그러나 아들은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어 0점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어린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피아노를 배우는 모양이었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는 음악대학이 유명하다. 그곳 음대 교수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지역 어린이들에게 리코더를 무료로 가르쳐준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느 한국인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리코더? 그거 피리 아냐?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문방구에서 팔던 싸구려 플라스틱 피리... 그거 배워서 뭐해? 악기라면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배워야지.” 전통 깊은 악기인 리코더는 지금도 고급 클래식음악에서 필수적인 악기이다. 인디애나대학교 음대에는 리코더 전공자가 있고 그 교수는 세계적인 대가였다. 그러고 보니 한국인들은 악기 배우는 데에서도 몇몇 악기에 집중하는 쏠림 현상을 나타낸다. 관악기 가운데는 플루트, 클라리넷이 인기를 끄는 반면 바순, 호른 같은 악기는 생소하다. 이색적인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는 늘 “하필 왜 그 악기를 선택했느냐?”는 질문에 시달린다. 독특한 취향으로 봐주면 그것까지는 감내하겠는데 이상한 사람으로 간주하면 억울하단다. 국악 전공자도 같은 경험을 한다. 한국인이 한국음악을 하면 당연한 일인데 “여러 음악 가운데 왜 국악인가?”라는 편견어린 시선을 던지는 이가 수두룩 하단다.



01



02



03

01. 기발한 발상, 참신한 아이디어는 자유로운 사고가 허용되는 분위기 속에서 발현된다.

02.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느대학. 프랑스는 각 개인의 사고능력과 판단능력을 개발하는데 근본 목적을 둔 교육철학에 바탕을 두고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과정을 매우 다양하게 운영한다.

03. 휴일을 맞아 산행에 나선 등산객들. 요즘 어른들의 취미는 등산 아니면 골프다. 주말만 되면 등산로마다 중년 등산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획일劃一’이라는 말은 한 줄 그은 선을 뜻한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불안해진다. 어릴 때부터 친구 따라 강남 가다보니 어른이 돼서도 취미생활이 비슷해진다. 등산 아니면 골프다. 골프를 배우지 않은 어느 기업인은 늘 주변 지인들에게서 “왜 골프를 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아 곤혹스럽다고 한다.

개성 존중, 다양성 인정... 상상력의 원천

한국의 대학에서 1980년대 이후 경영대 규모가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 규모가 큰 사립대학교에서는 경영대 입학 정원만도 300명이나 된다. 고교 문과 졸업생 가운데 성적 상위권 학생들은 너도나도 경영대에 들어간다. 과거에 출세의 지름길인 판사, 검사 지망생들이 지원하던 명문대 법대가 문을 닫으면서(로스쿨이 생기면서 상당 수 법학도가 사라졌음) 경영대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경영대 커리큘럼을 보면 기업경영과 관련한 다방면의 지식을 가르치지만 뭔가 뚜렷한 특징은 모자란다.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과 한판 멋진 비즈니스를 벌이고 싶은 젊은이가 있다면 경영학과 보다는 중어중문학과에 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중국어, 중국문학 등 문화적 바탕을 튼튼히한 다음 비즈니스를 배우는 게 훨씬 유용하리라. 인터넷 출현이후에 외국어 학습 분야에서 영어가 다른 언어를 압

도하고 있다. 대학에서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학과가 존폐위기에 놓인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러나 역발상을 해보자. 이런 언어를 구사하면 활동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다. 네덜란드어, 스웨덴어를 익혀두면 그곳 관련 업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푸코, 라캉, 부르디외, 알튀세르, 데리다... 현대 철학의 대표적인 석학들이다. 공교롭게도 모두 프랑스에서 활동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개인의 삶과 인간사회에 대해 새로운 사고의 틀을 만들었다. 고도의 정신적 산물인 철학을 프랑스인들이 주도한다는 사실을 살펴보면 프랑스가 여전히 문명, 문화의 원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개성을 존중하는 프랑스인의 의식구조 덕분일까.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프랑스에는 치즈와 와인 종류가 수백 종이나 돼 각자 취향에 따라 먹는다. 프랑스 학교 교육 사례를 소개하자면 유치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도 수십 가지 색깔로 마음대로 그리게 한다. 사물의 형태를 그리기보다는 다양한 색감을 익히는게 더 중시된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 하는 평가도 없다. 개성 존중이 엿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멋대로 하게 방치하는 게 아니다. 보들레르, 발레리 등 거장 시인의 작품들을 암송해야 하고 알파벳과 숫자는 또박또박 쓰도록 엄격히 훈련 받는다.

다음호에 계속

(제공: 문화재 사랑)



[화교경제에 대한 단상] 네트워크 경제의 힘

글: 이해창 (신한은행 전무)

필자가 인도네시아에 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9월, 당시 중국계 기독교도인인 아후 카르타 주지사의 이슬람 신성모독 논란 탓에 이듬해 선거는 정책보다는 종교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었으며 이 논란은 조코위 대통령을 위시한 신진 개혁세력과 기성정치권과의 정치적 대결로 확산되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듯하다. 인도네시아에서 3% 남짓한 인구로 대부분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화교와 반대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빈곤한 무슬림과의 갈등은 비단 최근의 문제는 아니었으며 정치투쟁과 맞물려 쉽게 수그러 들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화교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며 나아가 이러한 경제부문 기득권이 정치부문으로 이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화교란 중국을 의미하는 ‘화(華)’와 타국에서 거주를 의미하는 ‘교(僑)’가 합쳐진 말로 중국

본토를 떠나 해외 각처에 정착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본국과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 유기적인 연관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인 또는 그 자손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천팔백만명의 화교가 퍼져있으며 그 가운데 90% 이상이 홍콩과 대만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집중되어 있다. 주로 유통과 금융을 중심으로 한 경제 분야에 진출해 현지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화교의 지나친 경제력과 민족 중심의 단결력이 현지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켜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 곳곳에 진출해 활발히 상업 활동을 해 왔으며 중국 문화가 세계 속에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아울러 1979년 중국 개혁개방 이후 30년 이상 중국 본토 투자의 87%를 화교 자본이 담당했다는 ‘세계화상발전보고서’의 내용은 화교의 중국 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화교 인구는 정부 통계상 전체 인구의 3% 정도로 약 600만 명 정도이나 실제로는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많은 인구 수에도 불구하고 현지인과 화교 사이의 결혼이 보기 드물 정도로 인니의 화교들과 현지인들은 종교와 경제를 제외하고도 동화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인니의 화교들은 1967년 수하르토 집권 이후 공식진출에 제한을 받아 대부분 경제계에서만 활동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100대 부자 중 79% 그리고 상위 10대 부자 중 9명이 화교이며 나아가 상장기업가운데 70% 이상이 화교 기업이며 10대 기업 중 8개 기업의 오너가 화교일 만큼 인도네시아 화교의 위상은 다른 동남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화교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과거 인니 정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화교 자본과 손잡은 공무원들과 더불어 화교를 견제할만한 현지 자본의 부재로 인해 그들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때문에 필자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부임 받을 당시 한 지인이 인도네시아에서는 비즈니스를 위해 인니어 만큼 중국어 또한 중요하다는 귀뜸이, 많이 과장된 말은 아니라는 생각까지 든다.

필자가 꼽는 화교들의 경제적 성공요인은 바로 그들의 견고한 네트워크이다. 고향을 등지고 타지에 정착하며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깊

이 인식하고 있는 화교들은 네트워크 구축에 매우 적극적이며 자신들끼리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고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세계는 국가 집합체에서 네트워크 집합체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역설적인 현상은 국가 간 경계가 흐려지면서 오히려 민족적 정체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면서 사람들의 정체성이 약화되자 문화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뿌리의식과 민족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세계가 ‘국가중심’에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화교들은 진정한 의미의 세계적, 민족적 네트워크를 발 빠르게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화교 경제는, 공장은 중국에 은행은 홍콩에 그리고 사무실은 캐나다에 두는 방식으로 아시아를 넘어 북미와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로 그 영역을 더욱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교의 세계적인 커넥션에 대해 연구한 석학들은 ‘21세기의 세계 경제의 패권은 미국도 유럽 연합도 아닌 화교’라고 입을 모을 정도이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그렇다면 코리아 네트워크는 그 실체가 있기는 한걸까?’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된다. 그리고 아쉽게도 그에 대한 자답은 회의적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며 느끼고 또 자성하게 되는 이유는, 까다로운 정부정책을 무기로 경제전반을 관여해온 정부와 그들과 결탁해 경제를 장악해온 화교네트워크, 또 막강한 자본을 무기로 인프라개발을 주도해오며 이미 그들만의 공고한 담합구도를 이룬 일본 기업들, 이에 더해 중국의 본토 자본마저 인도네시아를 넘보고 있는 현재의 판도에서 ‘과연 우리는 코리안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코리안 파이를 더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그마한 파이마저 서로 더 가져가려 애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저하게 되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집중! 이 사람

KOWIN 회장, 민주평통 자문의원

PT. PRIME FREIGHT INDONESIA 이희경대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1. 인도네시아 정착하게 된 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스토리(자기소개)

본사 (주) 프라임 운송이 가루다 항공의 화물부문의 서비스를 대행하던 2008년, 한국회사가 많이 진출한 인도네시아에서 가루다 항공 서비스 활성화를 바라는 가루다 항공사의 요청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 인천과 자카르타의 직항서비스가 없이 발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화물이 오고 가던 때였다. 발리에서는 인천발 화물과 일본에서 오는 화물이 더해져 자카르타까지 연결되는 스페이스는 늘 부족하여 원하는 시간에 도착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인도네시아에 오기 1개월 전까지 호텔과 보험사 등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터라, 화물 운송업무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들은 귀동냥이 전부였다. 업무 터득과 회사 설립, 또 당시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이었던 아이들의 진학 뒷바라지가 내 일이었다. 대학졸업을 앞둔 조카와 아이들과 시작된 인도네시아 정착은 한국 본사에 있는 남편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줘도 불구하고, 화물운송 베테랑이면 이루어 낼 성과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이들이 대학 진학을 하기까지 “6년 정도”로 예상했던 인도네시아 체류는 발을 빼기가 쉽지 않았다. 전직 호텔리어로서 굳어진 나의 업무태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이다. 내 불편 보다는 고객의 불편이 더 마음에 걸리고 고객의 수고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상황이 불편하다고 회피하거나 거짓상황으로 얼버무릴 수 없다. 장점이자 단점이다.

네트워킹을 통해 교류를 하게 된 것은 인도네시아 생활을 버텨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코윈 인도네시아에 가입하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웃이 생기고,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았다. 그 인연으로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명예도 갖고, 사람이 귀하다 보니 한국에서 보다 과분한 대접도 받게 되었다. 나를 위해 시작한 일에서 주인니 대한민국대사 표창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상까지 받았으니, 한국에 머물러 있었으면 받지 못할 영예이다.

그래서 버거운 자리지만 코윈 인도네시아의 담당 관직을 기꺼이 받았다. 예전의 나처럼 누군가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이제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2. 현재하고 계신 사업의 현황

PT. Prime Freight Indonesia는 가루다 항공의 화물부문 에이전트로 시작하여,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한국계 항공사는 물론 홍콩, 대만, 베트남, 중동 및 유럽계 등 17개 항공사의 에이전트로 활약하고 있다. 고객군도 한국업체의 비중이 55%, 나머지 45%를 현지업체 및 다국적 업체로 다각화 되었다. 다국적 운송 업체와의 서비스 경쟁을 위하여 해외 네트워킹에 주력하여 업무 영역을 해상 수출입과 국내운송 까지, 업무 반경은 한국과 구주를 넘어 중동, 아시아, 남미 및 아프리카로 확장되었다.

발리에 3인, 수라바야에 1인의 핵심인력만 배치, 전체 근무인원 34명(한국인 4명 포함)이 항공부문에서 만큼은 수백명이 근무하는 다국적 포워드 및 현지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3. 올해의 목표 및 계획 (KOWIN 관련 포함)

7월이면 KOWIN의 담당관으로 임기 1년을 보냈다. 회원모집과 운영방안으로 고민하며 시행착오

를 거듭한 1년이였다. 단체장이라는 버거움을 코윈 재인니 한글학교(자카르타, 땅그랑, 찌까랑, 끌라빠가딩 교실)에서 수고하는 17명의 선생님들과 각계에서 활약중인 임원진이 덜어주고 있다. 이미 연간 사업으로 자리잡은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으로 올해 상반기에 4호 주택을 지었고, 하반기에는 4차산업을 주제로 하는 한인청년 워크숍과 세계 부인회를 대상으로 “한국의 뷰티”를 선보이는 코리안 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한지공예, 스포츠댄스, 쿠키 만들기, 인문학 강의 “이슬람의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등 코윈 회원의 충전을 위한 작은 이벤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회원간 미니 비즈니스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진행중이다.

4. 향후 비전

건실하고 오래 살아남는 사업체, 회원이 행복한 코윈 인도네시아. 이를 위하여 어떤 밑거름이 될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5. 한인사회에 하고 싶은 말

서로 돌아보고 화합하여 존경받는 커뮤니티가 되도록 조금 더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미덕을 행하기를 바란다.





냉면 Mie Dingin

글: 양소연 (전 KBS World Radio 방송작가)

안녕하세요 한인뉴스 애독자 여러분. 요즘 인도네시아 날씨는 덥다, 덥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8월은 입추와 말복이 함께 있는 달로 가을로 들어서는 문턱이지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나 한국은 아직 많이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요즈음 저는 막국수나 콩국수처럼 시원하고 술술 넘어가는 음식이 가장 먹고싶던데, 독자님들은 어떤 음식이 가장 생각나시나요? 막국수, 콩국수도 맛있지만 여름음식 하면 냉면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이번 달 Aneka Masakan Korea에서는 냉면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 그릇에 더위가 저만치 물러갈 수 있는 냉면. 오늘 저와 함께 시원한 냉면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Bahan-bahan

Naengmyeon Mie 500g

Mentimun 1 buah

Lobak 1/3 buah

Buah pear 1/2 buah

2 butir telur

Gula pasir dan garam secukupnya



Untuk membuat kuah Naengmyeon diperlukan:

Brisket daging sapi 400g
Air putih 12 gelas
Daun bawang 1 buah
Bawang putih 5 butir
Bawang bombay 1/4 buah
Biji merica 5 butir
Cuka beras atau apel 3 sendok makan
Gula pasir 2 sendok makan
Garam sedikit

Untuk saus Naengmyeon tanpa kuah atau Bibim Naengmyeon diperlukan:

Bubuk cabe merah yang halus 3 sendok makan
2 sendok makan Gocujang, gula, sari bawang bombay, sari apel,
bawang putih yang dicincang halus
Cuka beras atau apel 4 sendok makan
Garam 1 sendok teh

Cara memasak

1. Sebelum memasak, brisket daging sapi direndam pada air dingin untuk mengeluarkan sisa darahnya.
양지머리는 요리하기 전 차가운 물에 담귀 핏물을 빼줍니다.
2. Siapkan panci besar lalu masukkan brisket daging sapi bersama bahan-bahan lainnya untuk membuat kuah
큰 냄비에 핏물을 뺀 양지머리와 냉면육수를 만들 재료를 모두 넣어 줍니다.
3. Didihkan sekitar 2 jam dengan api sedang lalu biarkan hingga dingin
중불로 두 시간 정도 끓인 후 불을 끄고 식혀둡니다.
4. Angkat dagingnya, dan sebelum kuahnya disaring buanglah minyak yang terapung di atas kuah. Dagingnya diiris tipis-tipis
고기를 건져내어 얇게 썰고, 기름을 건져낸 국물은 고운 체에 걸러 국물만 따로 보관합니다.
5. Di dalam kuah tadi, tambahkan garam, cuka dan gula. Lalu masukkan ke dalam kulkas.
걸러낸 국물에 소금, 식초, 설탕을 넣어 기본 간을 해 주고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준비합니다.
6. Bersihkan timun dan lobak, setelah itu iris tipis dan miring dengan panjang 4 cm.
Setelah itu diberi garam sedikit. Diamkan sebentar
깨끗이 닦은 오이와 무는 4cm 길이로 얇게 잘라 소금을 조금 뿌려 절입니다.
7. Keluarkan air dari timun dan lobak, kemudian campurkan dengan saus perendam
오이와 무가 잘 절여졌다면 물기를 꼭 짜고 준비해 둔 밀간 양념에 잘 섞어 둡니다.

8. Siapkan buah pear dengan irisan tipis memanjang. Dan rebuslah telur lalu dibelah dua. 배는 가늘게 채 썰고 달걀은 완숙으로 삶아 반으로 잘라 준비합니다.
9. Campurkan semua bahan-bahan saus Naengmyeon tanpa kuah 비빔냉면용 양념장을 모두 잘 섞어 둡니다.
10. Rebus Naengmyeon Mie dan langsung tiris dengan air dingin. 냉면 면을 삶고 바로 찬물에 씻습니다.
11. Di dalam mangkok besar, masukkan mie dan hiaskan lobak, timun, telur, daging dan pear. Kemudian tuangkan kuah yang sudah dingin. 냉면 용기에 물기를 뺀 냉면 면을 담고 절여둔 무와 오이, 삶은 달걀과 고기, 배를 가지런히 담고 미리 차게 식혀둔 육수를 부어줍니다.
12. Untuk menyajikan Naengmyeon yang tanpa kuah, atau Bibim Naengmyeon, tambahkan saus di atas mie naengmyeon. 비빔냉면은 미리 준비해 둔 양념장을 올려 줍니다.

Ada 3 jenis Naengmyeon paling terkenal di Korea, yaitu Pyungyang Naengmyeon, Hamheung Naengmyeon dan Jinju Naengmyeon. Iya semuanya mengikuti nama daerahnya. Begitu banyak disukai oleh masyarakat Korea sejak dahulu. Setiap Naengmyeon mempunyai ciri khas sendiri. Rasa kuah atau sausnya berbeda, juga bahan mie dan tambahan di atas mie juga berbeda satu sama lain. Bukankah Anda mau mencoba semuanya?

Saya berharap dengan makanan edisi bulan ini, Anda sekeluarga dapat melupakan sebanter panasnya cuaca. Sekian Aneka masakan Korea kali ini. Saya Yang So Yeon akan menjumpai Anda lagi edisi bulan depan. Selamat mencoba. Terima kasih.

Kosakata Edisi bulan ini

1. Tanpa : ~을 제외하고

☞ Saya mau minta kopi dingin tanpa gula.
전 설탕 뺀 차가운 커피 주세요

2. Sari : 요점, 진액 ☞ Sari buah nanas. 파인애플 진액

3. Saringan : 체, 여과기 ☞ Saya mau beli saringan kopi.
저는 커피 여과지를 사고 싶어요

4. Jenis : 종류 ☞ Jenis apel ini paling enak diantara ini.
이 종류의 사과가 이 중에 가장 맛있어요



2018 아시안 게임 지원 민관합동위원회 출범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및 한인회, 대한체육회 등 재인니한인단체 합동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우리 선수단의 참가 지원 예정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합동위원회가 김창범 주인도네시아대사와 양영연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2018.7.4.(수)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서 출범하였다.

동 출범식에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한국문화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관광공사(KTO),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재인도네시아 한인언론협의회, 한민족여성네트워크 인니지부(KOWIN), 한인니문화연구원,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KONI) 한국국제특사 등 민관합동위원회 구성기관 관계자 약 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민관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 인사말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및 우리 선수단 현황 소개, 민관합동위원회 조직 현황 및 임원 소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 지원 등 순서로 진행되었다.

2018 아시안 게임 지원 민관합동위원회는 대한

민국 선수들이 열정적인 응원 속에 성공적으로 경기를 치르고, 동 게임 참관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우리 공관이 위치하고 있지 않는 팔렘방내 우리 선수단 지원과 팔렘방을 방문한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해 임시영사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관합동위원회는 금번 게임이 동포 사회 내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인도네시아내 한국과 한인들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는 남북한이 일부 종목들에서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민관합동위원회는 동 대회가 남북한 화합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기로 하였다.

※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은 1962년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두 번째 아시안 게임으로서, 2018.8.18.(토)~9.2.(일)간 총 40개 종목과 67개 세부종목 경기가 자카르타 및 팔렘방에서 개최 예정

인도네시아 가까운 마트에서 쉽게 구입하는 비상약



감기약: TOLAK ANGIN

(non-drowsy 졸음방지 확인)
한국의 쌍화탕을 연상케 하는 시럽형태, 꿀, 생강, 민트의 천연성분 천연력대 Rp.15.000



기침: BISOLVON/ 진해거담제, 기관지염
VICKS FORMULA/ 물약



종합감기약: TOLAK ANGIN, STOP COLD, KONIDIN, NEOZEP, DECOLSIN, NELCO SPECIAL OBH COMBI PLUS, VIKCS VAPORUB



인후통: ORODIN ANTISEPTIC THROAT SPRAY

편도선염, 목 통증 및 구강내염증:
LARUTAN PENYEGAR, EFISOL, HAU FUNG SAN, LO HAN QUO, ADEM SARI



비타민제: REDOXON, CDR, ALINAMIN-F, VITACIMIN, XON CE



두통: PARAMEX
발열 및 두통: PANADOL CAPLET EXTRA, PANADOL BIRU, DUMIN PARACETAMOL



BINTANG TOEDJOE NO.16



THERMOREX ANAK



통증과 소염을 위한 패치형 파스:

KOYO(발열 파스), SALONPAS (냉온파스)

통증과 소염을 위한 크림과 젤 타입: SALONPAS CREAM, SALONPAS GEL, HOT N CREAM, COUNTERPAIN, COUNTERPAIN COOL, SALONPAS LINIMENT, AMMELTZ YOKOYOKO
오일과 크림타입의 바르는 외



CAP KAPAK(오일), KAYU PUTIH
(오일), TIGER BALM(크림),
FRESH CARE(오일)



지사제: DIAPET/DIATABS



진통제 및 해열제:
PONSTAN, BIOGESIC



화상연고: BIOPLACENTON



구충제: COMBANTRIN
PIRANTEL PAMOAT



제산제(위장계통):
MYLANTA(액상 및 알약)



복통 및 정장제:
TAI PIN SAN, SEIROGAN, NORIT



안약(눈세척 및 충혈):
ROHTO TEARS, VISINE TEARS,
INSTO MOIST, INSTO REGULAR,
VISINE ORIGINAL(눈세척)
ROHTO, ROHTO COOL(충혈)



눈세정: Y-RINS



소독용 알코올: ALCOHOL 70%



자상 및 상처소독:
BETADINE, RIVANOL



반창고: HANSAPLAST



거즈: KASA HIDROFIL



목 아플 때: COOLING 5,
TROCHES MEJI



코막힘: VICKS INHALER,
ILIADIN



햇빛 알레지(아외활동):
CALAREX



치통 완화: OBAT SAKIT GIGI
CAP BURUNG KAKAK TUA



멀미약: ANTIMO



벼룩에 물렸을 때:
PEDITOX



관장제: MICROLAX GEL



변비약: DULCOLAX



임신테스트기: SENSITIF



무좀약: CANESTEN CREAM,
FUNGIDERM, DAKTARIN



모기 퇴치제 :
BAYGON, HIT, VAPE, AUTAN
(로션) SOFFELL



교정을 가득 메운 축제 한마당, JIKS Indonesia Festival

2018년 7월 6일(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JIKS, 교장 백우정)에서 인도네시아의 모든 것이 펼쳐진 축제의 장, 제 2회 JIKS Indonesia Festival이 열렸다.

학교 자체 행사에서 그 범위를 넓혀 인도네시아 한인 교민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JIKS Indonesia Festival은 이명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총영사, 양영연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배도운 학교 이사장 등 각 계 각층의 많은 교민들과 UI 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해 주었다. 미리 참가 신청을 한 유치원생, 교민 등 147명의 외부 체험단도 함께 축제에 참가하여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하였다.

JIKS Indonesia Festival은 기념식 및 1,2학년 어린이들의 꼭두각시 한국 전통 공연과 인도네시아 전통 무용 공연단을 비롯한 여러 공연단의 축하 공연으로 화려하게 축제의 문을 열었다. 축제는 Feel! Indonesia, Learn! Indonesia, Enjoy! Indonesia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체험할 수 있었다.

첫째 마당 Feel! Indonesia에서는 전통 악기 연주 체험, 인도네시아 지역별 고유 음식 만들고 맛

보기, 다양한 지역 의상 및 장신구 직접 착용해보기 등 인도네시아를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둘째 마당 Learn! Indonesia에서는 사탕수수를 직접 즙으로 짜서 원액 시음하기, 밀림 속 원시부족들의 중요한 탄수화물 공급원인 사구 녹말을 직접 만들고 맛을 보면서 원시 인도네시아인의 삶 체험하기, 학교 교정에 직접 만든 인도네시아 전통 가옥체험도 함께 하였다. 셋째 마당 Enjoy! Indonesia에서는 Becak과 Delman을 타고 학교 산책하기, 바나나 직접 따기, 인도네시아 정부 허가까지 받아서 공수해 온 고무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으로 고무를 만드는 과정도 배워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어린이 전통 놀이, 바틱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직물 Tenun 직접 짜보기, 재활용품을 이용한 Wayang 만들기, 다양하고 신비한 여러 종류의 향신료, 과일, 야채 구경하기도 하였다.

Korean Day와 격년제로 JIKS Indonesia Festival을 번갈아 행사를 개최하는 JIKS는 우리 학생들이 인도네시아 속의 고립된 이방인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문화와 한국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느끼며 받아들이는 편견 없는 글로벌 미래 사회의 주역들이 되기를 희망한다.

수카르노의 일생을 통해 본 인도네시아 현대사



수라바야에서 휴전을 성사시킨 수카르노. 그러나 이 휴전은 불과 5시간만에 끝난다

지난 호에 이어

수라바야 전투

1945년 8월 말 공화국 중앙정부가 자카르타에서 출범하고 중앙 인도네시아 민족위원회가 선임되어 대통령을 보좌하게 되자 주 단위, 면 단위에서도 이를 본따 비슷한 위원회들이 조직되었다. 신생정부는 지방과 외곽도서를 포괄하는 과정에서 각 지방의 통치자들에게도 중앙정부 출범을 통지했는데 중부자바에서는 즉시 지지회신을 해온 반면 네덜란드의 비호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던 도서지방의 술탄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열의를 보였다. 공화국 지도부의 극단주의적, 비귀족적, 이슬람적 성격과 자바인이 중심이 된 중앙정부 인적구성도 그들의 반감을 일으키는 소재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보네의 왕을 비롯한 중부 술라웨시의 지지가 있었고 마카사르와 부기스의 왕들도 신생 공화국을 지지했으며 마나도의 기독교인들과 발리의 왕들도 순순히 공화국 정부의 권위를 받아들였다.

1945년 9월에 이르러 스스로 청년단이라 칭하며 온전한 자유를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연합군의 상륙이 임박하자 그들의 긴장과 공포는 임계점을 넘어 급기야 첩자라고 여겨지는 네덜란드인 피억류자들, 유라시아 혼혈, 암본인, 화교 등의 특정 인종집단들을 위협, 납치, 강탈, 살해하고 심지어 집단학살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은 독립전쟁기간 내내 계속 벌어졌는데 특히 ‘준비단계’라 불리는 1945-46년 사이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다. 이 시기의 희생자 무덤 3,500기 정도를 수라바야의 끔방꾸닝 묘지 등 몇몇 장소에서 지금도 찾아 볼 수 있다. 수라바야의 심쌍 소사이어터 클럽은 인도네시아 국민당(PRI)의 청년단에게 접수되어 그들의 본

거지가 되었고 그 우두머리 수또모(Sutomo)라는 자는 수백 명의 간이처형을 감독했는데 1945년 10월 22일 벌어진 사건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았다.

“매번 처형을 할 때마다 수또모는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군중들에게 “이 민중의 적”을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고 군중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죽여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루스땀이라는 자가 칼을 들고 나와 희생자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죠. 목이 잘린 시신은 10세 갓 넘은 소년들에게 넘겨졌는데 그 아이들은 피에 끓주린 악마처럼 시신들을 난도질해서 조각내 버렸습니다. 여자들은 뒷뜰 나무에 묶어 성기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목이 잘린 시신들은 바다에 버려졌고 여자들은 강에 버려졌다고 한다. ‘준비단계’ 시기의 사망자는 수만 명에 달했고 실종자들도 2만여 명을 넘었다.

군대 역시 혼란 속에 있었다. 일본 패망으로 PETA와 헤이호가 해산되자 군의 지휘체계와 소속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그해 9월부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군경험 없는 청년집단들을 무장시키면서 이들은 군벌의 성격을 띠고 다른 파벌들과 곧잘 충돌했는데 이들을 통합해 체계와 기강이 잡힌 군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독립전쟁 초창기에 신생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였다. 이렇게 자생적으로 발생한 인도네시아 군에는 일본식 훈련은 받은 장교들이 네덜란드식 훈련을 받은 이들을 수적으로 압도했고 29살의 교사 출신 PETA 장교 수디르만이 1945년 11월 12일 족자에서 처음 열린 사단장급 사령관회의에서 네덜란드군 출신의 경험많고 노련한 우립 수모하르쥬 장군을 누르고 인도네시아군 총사령관으로 선출되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수디르만 장군 기념우표

수디르만은 세 번째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22표를 얻어 21표를 얻은 우립 장군을 제치고 국민치안대 총사령관으로 선출된 것이다. 이는 수마트라 지역 사령관들이 수디르만에게 물표를 던졌기 때문이었다. 수디르만에게 있어 우립 장군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군에 몸담았던 대선배였다. 수디르만은 그 투표 결과에 놀라 총사령관직을 우립 장군에게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의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우립 장군 스스로도 투표결과에 깨끗이 승복했다.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 네덜란드군 장교로서 했던 충성맹세를 군 후배들이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로서는 네덜란드와 싸워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네덜란드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섬기며 전장에 나설 수 없었던 것이다. 수디르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립 장군을 극구 만류해 참모장으로나마 남도록 했고 자신은 총사령관직 수행을 위해 규정된 4성 장군, 즉 대장계급을 달게 된다.

1945년 10월 영국군 주도의 연합군이 스마랑에 상륙해 남쪽 마글랑의 군사기지를 확보하려 할 때 이를 보고받은 수디르만(당시 대령)은 휘하 이스디만 중령의 부대를 보내 그들을 몰아냈는데 작전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유럽군들은 마글랑과 스마랑 사이에 있는 암바라와까지 후퇴했다. 당시 우립 장군은 자바 지역의 군사지휘권을 몇몇 지휘관들에게 배분하던 중이었는데 이 전투결과를 보고받고 수디르만의 능력을 높이 사 그를 제 5사단장에 임명했던 것이다. 수디르만과 우립이 서로를 인정하고 각별하게 여겼던 것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우립 수모하르조(Oerip Soemohardjo) 장군

한편 네덜란드는 수카르노와 하타의 일본 부역정력을 비난하며 인도네시아 공화국은 일본 파시즘의 부산물일 뿐이라고 깎아 내렸다. 그 프로파간다가 어느 정도 먹혀 네덜란드 식민정부 NICA는 인도네시아를 회복할 비용을 유엔으로부터 일부 지원받기도 했다. 1945년 11월 의회중심주의 내각이 출범하고 항일지하운동을 출신의 수판 샤리르가 총리로 임명된 것은 이런 서방의 시각을 의식한 측면도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동안 네덜란드는 아직 제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1946년 초가 되어서야 동인도제도에 의미있는 숫자의 병력을 파병할 수 있었다. 동인도제도는 연합군 총사령부 산하 영국 제독 루이스 마운트배튼경의 동남아시아 사령부 관할 하에 있었는데 네덜란드군이 직접 진출하기 전까지 일본군과 연합군의 다른 부대들이 마지못해 네덜란드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연합군이 깔리만칸, 모로타이(말루꾸), 이리얀자야 일부 지역으로 진출할 때 네덜란드 행정관료들도 이미 그들을 따라 인도네시아에 돌아오고 있었다.

일본남방함대 관할지역에 도착한 호주군은 일본군이 별다른 저항없이 항복했으므로 육군 2개 사단만으로 발리와 롬복을 제외한 인도네시아 동쪽 도서지역 전체를 신속히 점령할 수 있었다. 한편 영국군은 자바의 치안유지와 민간정부의 회복을 지원토록 명령받고 있었다. 네덜란드는 이 ‘민간정부’가 전쟁 전 식민정부를 뜻하는 것이라 강조하며 기득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영연방군이 자바에 상륙해 일본군의 항복을 받은 것은 9월 말의 일이었고 마운트배튼경에겐 30만 명에 달하는 일

본군 송환과 전쟁포로 석방 등 당면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으므로 네덜란드에게 인도네시아를 되찾아 줄 인적, 물적자원도 부족했고 무엇보다도 그럴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군은 인도네시아에 발을 딛으면서부터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독립전쟁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첫 영국군 부대가 자카르타에 입성한 것은 1945년 9월 말이었다. 그들은 메단(북부수마트라), 빠당(서부 수마트라) 빨렘방(남부 수마트라), 스마랑(중부 자바), 수라바야(동부 자바) 등에도 10월에 입성했다. 인도네시아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영국군 사령관 필립 크리스티슨 중장은 호주군이 이미 점령한 인도네시아 동쪽 외곽도서들부터 네덜란드군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연합군이 자바와 수마트라에 입성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다가 정작 영국군이 먼저 전투에 휘말리자 공화국군은 네덜란드인 피억류자들, 네덜란드 식민지군(KNIL) 포로, 화교, 유라시아인 및 일본군 등 적이라고 인식되는 모든 집단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첫 대규모 전투가 1945년 10월에 촉발됨에 따라 영국군은 1만여 명의 인도네시아-유라시아인들과 유럽인 피억류자들을 위태로운 자바 지역에서 소개시키기로 결정했다. 한편 암바라와와 마글랑 인근마을에서 영국군 분견대들이 공화국군의 강력한 저항을 받자 영국군은 이들에 대한 공습도 불사했다. 수카르노는 11월 2일 휴전을 합의했는데 11월 말 다시 전투가 시작되면서 영국군은 해안으로 철수했다. 연합군과 친네덜란드 시민들에 대한 공화국군의 공격은 11월과 12월에 극에 달해 그 시기에 반동에서만 1,200명이 사망했다. 1946년 3월 영국군의 최후통첩에 따라 공화국군이 반동을 떠나기 직전인 1946년 3월 24일 BKR 지휘관인 모하마드 또하가 동료 모하마드 람단과 함께 연합군 화약고에 다이나마이트를 던져 넣어 반동 남부에 대화재를 일으킨 사건이다. 이 화재로 반동의 남쪽 절반이 잿더미로 변했는데 이를 ‘반동 불바다 사건’ (Bandung Lautan Api)이라 부른다.

화재를 일으킨 두 군인은 폭발에 휩쓸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지만 반둥 시민들은 이 사건을 기려 반둥 불바다사건 기념비를 세우고 도로에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 오늘날 자카르타에서 차량으로 출발해 반둥 외곽톨에 접어들면 톨게이트들 중 ‘모.또하’ (Moh.Toha)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모하마드 또하의 이름을 따온 일반도로가 이어진다. 이 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달리면 BKR 도로와 만나게 되고 그 건너편엔 반둥 불바다사건 기념비가 있는 공원이, 그 우측 신호등에서는 모하마드 람단 거리가 시작된다. 반둥 사람들은 이 사건을 아직도 그렇게 기념하고 있다.



모하마드 또하(왼쪽)와 반둥 불바다사건 기념비(오른쪽)

10월 하순에서 11월 말에 걸쳐 벌어진 수라바야 전투는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중 단일 전투로서는 가장 큰 규모였고 오늘날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의 상징적 사건이 되어 있다. 수라바야의 청년집단들은 일본군으로부터 탈취한 무기와 탄약으로 무장하고 임박한 연합군과의 전투를 준비하며 수라바야를 요새화 하기 시작했다.

도시는 아비규환이었다. 시내곳곳에서 백병전이 벌어졌고 시체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머리가 날아가고 사지가 절단된 시체들이 여기저기 겹쳐져 누워 있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격렬한 사격과 총검으로 적들을 죽였다. - 수카르노

1945년 9월과 10월 풀려난 유럽인들과 친네덜란드 혼혈들이 수라바야 야마토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폭도들의 공격을 받아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단의 유럽인들이 일본군의 비호를 받아 수바라야 시내 야마토 호텔(지금의 마자빠히트 호텔)에서 네덜란드 국기를 옥외 국기계양대에 게양한 것이 사건의 시초였다. 술취한 젊은 이들의 치기를 인도네시아 재정복을 노리는 네덜란드의 의지로 받아들인 현지 인도네시아인들은 격분하여 이들을 공격했고 플뢰그만이라는 네덜란드 남자가 공개 살해되고 네덜란드 국기가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수라바



야에 짙은 전운이 드리우자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조직인 나드라툴 울라마(NU)는 조국을 지키는 것은 성전이라고 공표했다. 성전은 어떤 무슬림도 외면할 수 없는 종교적 의무였으므로 동부자바 전역의 이슬람 지도자들과 이슬람 기숙학교 학생들이 대거 수라

바야에 몰려들어 총과 죽창을 들었다.

영국군 제 23 인디아 사단소속 제 49 보병여단의 경보병 6천 명이 도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영국군의 주 목표는 수라바야 항구였다 영국군은 10월 27일 수라바야에 공격이 임박했으니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는 전단을 항공기로 살포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인도네시아인들의 공분을 사 다음 날 공세에 나선 인도네시아군이 인디아군 2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연합군과의 전면전을 피하려 했던 수카르노와 하타는 아미르 샤리푸딘 총리를 포함한 각료들과 함께 10월 30일 급히 수라바야로 내려가 영국군 사단장 호손 소장, 제49 여단장 벨러비 준장과 일단 휴전협정을 맺었다.

(다음호에 계속)



2018년 7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아시안게임 앞둔 인도네시아, '두테르테식' 범죄자 사살 논란

치안 확보 이유 '무관용 원칙' 적용... '초법적 처형' 비난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한 달여 앞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경찰이 치안 확보를 이유로 범죄자에 대한 사실상의 즉결처형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카르타 지방경찰청은 최근 노상강도와 오토바이 날치기 등 노상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허용했다.

아르고 유워노 자카르타 지방경찰청 대변인은 “체포에 저항할 경우 즉각 발포해 엄격히 대응하라는 것이 이드함 아지스 청장의 지시”라고 말했다.

내달 아시안게임을 전후해 수만 명에 이르는 외국 선수와 선수단 관계자, 관광객이 자카르타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유워노 대변인은 설명했다.

실제로 자카르타 시내에서는 노상강도 등이 경찰에 사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西)자카르타 꼬따 뚜아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쓰러뜨리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2인조 강도 중 한 명이 뒤쫓아온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달 2일과 3일에는 여성 행인을 상대로 휴대전화와 금품을 빼앗은 남성 두 명이 잇따라 사살됐다.

경찰은 이들이 ‘Tenda Oranye’ (주황천막)로 불리는 노상강도 조직의 일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지에선 경찰이 초법적 처형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자카르타법률구조협회 소속 변호사인 아유 예자띠아라는 “경찰은 범죄자를 사살할 의도로 총을 쏘진 안 된다. 어디까지나 무릎 등을 겨냥해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음달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수도 자카르타와 남(南)수마트라 주 팔렘방에서 진행되는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아시아 45개국을 대표하는 1만 500~1만1천 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는 아시안게임 사상 최대규모로 알려졌다.

이번 대회는 한국과 북한이 여자농구와 카누·조정 등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고 개·폐회식에 공동 입장하는 것으로도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인도네시아, 미국 무역위협 방책… “중국 교역량 늘리기”

인도네시아가 미국 보호무역 공세 탈출구 중 하나로 중국을 주시하고 있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엔가르띠아스또 루끼따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이끄는 무역협상단은 이날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미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대상국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협상하러 간 것이다.

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가 없이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미국은 1970년대 GSP를 도입하고 인도·중국을 포함한 개도국 120곳에서 3,500개 물품을 무관세로 수입해왔다.

인도네시아도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끝났다. 미 의회가 GSP 기한 연장 입법에 실패해서다. 당시 미 공화당·민주당은 올해 1월 의회가 소집되면 즉시 해당 입법에 착수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

인도네시아의 대미 무역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와 관련해 미국 상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광범위한 무역 및 투자 장벽이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교역량 가운데 GSP 적용을 받는 물품 비중이 가장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무역장벽을 없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올린 트위터 글에서 “자국으로 들어가는 제품에 인위적인 무역 장벽 및 관세를 부과해온 모든 나라는 그 장벽과 관세를 철폐하라”고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 강화로 대미 무역에 위협을



느낀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긴밀한 교역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덴디 이스와라 중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무역 담당자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모두 미국 무역압박이라는 공통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양국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교역량을 늘리면서 모범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 간 교역량은 지난해 634억 달러(약 72조원)로 전년도보다 17% 증가했다. 지난 4월엔 수력발전소 등 인프라 프로젝트 5건을 체결했다. 총 규모는 233억달러(약 26조4,500억원)에 달한다. 이달 들어선 중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와 7억2,600만달러(약 8,244억원) 규모의 팜유 및 그 파생상품 구매 계약을 맺었다.

인도네시아는 대중 수출량을 더 늘릴 계획이다. 이스와라 무역 담당자는 “중국의 시장 개방성과 접근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중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는 지난달 홍콩을 방문해 “중국에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할 계획”이라며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문을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경찰, 이슬람 과격파 200명 체포… “과격파 소탕 강화할 것”

최근 이슬람 과격파 조직 구성원 200명이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 경찰은 16일, 지난 5월 발생한 동부 자바 수라바야시의 기독교 교회와 경찰 본부 등에서 일어난 연속 자폭 테러 사건 이후 이슬람 과격파 조직 구성원 총 200명을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으며, 이 중 20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테러 사건 이후 5월 25일 국회 본회의가 15년 만에 반테러법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경찰 당국은 과격파 소탕을 강화해 저항할 시에는 사살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다 카르나비안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16일 서부 자바 데벙시의 경찰 기동대 구치소를 찾아 “국가는 테러 조직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가 경찰은 테러 조직의 구성원 적발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다 청장은 또한 “체포된 200명 중 50여명은 자카르타특별주에서 체포됐으며, 모두 인도네시아 IS 연계 테러조직 ‘자마 안샤룻 다울라’ (JAD) 구성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슬람 과격파 소탕은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다. 지난 14일 저녁에는 테러 용의자 3명이 경찰 대테러부대(덴수스 88)와 총격전을 벌이다 사살됐다.

경찰 당국은 현재 JAD 등이 경찰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새로운 테러 요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준금리 5.25%로 동결… “환율 하락 주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19일 기준금리를 연율 5.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BI는 이날 루피아 환율이 달러에 대해 하락세를 멈춤에 따라 기준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의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

블룸버그 통신의 사전 조사에선 이코노미스트 28명 가운데 25명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그간 BI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유출을 우려해 6월29일을 포함, 3차례나 연속해서 금리를

0.25%, 0.25%, 0.50% 포인트 각각 올렸다.

루피아는 연초 이래 달러에 대해 6%나 하락했다. BI는 루피아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5~6월 사이에 긴급 정책결정회의 등을 연속으로 소집, 기준금리를 총 1% 포인트 인상했다.

Perry Warjiyo BI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이 계속 매파적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혀 재차 루피아 환율이 하락할 경우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방선거 결과 발표, 조코위 대통령 재선에 적신호

27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발표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진행된 17개 지역 주지사 선거 중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메가와티 전 대통령이 이끄는 투쟁민주당의 후보가 승리한 곳은 4개 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위기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 서부 자바주와 중부 자바주에서는 기대 이상의 선전을 보였다. 야당은 이번 결과를 놓고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 저지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투쟁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지역은 중부 자바, 발

리, 남부 술라웨시, 말루꾸 주로 저조한 승률을 보였다.

한 여당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부 자바, 북부 수마트라에서의 패배가 뼈아프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인 뎀보는 2019년 여당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보도를 낸바 있고 이번 결과에 메가와티 전 대통령도 낙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린드라당(Gerindra)은 이번 선거 결과를 앞세워 뿌라보위의 대선 도전에 힘을 싣고 있으며 2019년 뿌라보위 수비안토의 대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현지 언론은 덧붙였다.

상공회의소, "올해 인니 건설 사업 규모 451조 루피아될 것"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는 올해 토목 공사 및 건축 공사 등 국내 건설 프로젝트의 규모가 전년 대비 3% 증가한 451조 3,000억 루피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딘의 에르빈 부회장(건설·인프라 부문)에 따르면, 올해 건설 사업의 내역은 토목 공사가 65%, 건축 공사가 35%가 될 전망이라고 인베스터 데일리지가 보도했다.

카딘의 로잔 회장은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인프라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기업은 자금면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영 기업의 협업과 분업의 형태로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국민주택부 바수끼 장관은 2015~19년에 계획돼 있는 인프라 사업의 사업비 총액을 4,700조 루피아로 추정하고 있다.



주요종목 경기일정표 (변동가능)



종목	구분	일자	장소	비고
축구(남)	예선	8/14~27일	"SI Jalak Harupat Stadium (Bandung) Pakan Sari Stadium (Bogor) Patriot Chandrabhaga Stadium (Jakarta) Wibawa Mukti Stadium (Cikarang)"	예선 8/19, 22, 25일 제외
	준결승	8/29일	Pakan Sari Stadium (Bogor)	
	결승	9/1일		
야구	예선	8/26~31일	GBK Baseball Field	
	준결승	9/1일		
	결승	9/1일		
"농구 (3x3, 5x5)"	예선	8/14~31일	"GBK Tennis Center Court GBK Basket Hall A"	예선 8/29일 제외
	준결승	"8/26일 (3x3) 9/1일 (5x5)"	"GBK Tennis Center Court GBK ISTORA"	
	결승	"8/26일 (3x3) 9/1일 (5x5)"		
배구	예선	8/19~30일	"GBK Tennis Indoor Stadium Pertamina Simpurg Stadium"	
	준결승	8/31일		
	결승	9/1일	GBK Tennis Indoor Stadium	
골프	예선	8/23~25일	Pondok Indah Golf & Country Club	
	준결승	8/26일		
	결승	8/26일		
테니스	예선	8/19~23일	JSC Tennis Court	
	준결승	8/24일		
	결승	8/25일		
볼링	예선	8/22~27일	JSC Bowling Center	
	준결승			
	결승			
핸드볼	예선	8/13~29일	Gor Popki Cibubur	예선 8/18, 23, 26일 제외
	준결승	8/30일		
	결승	8/31일		
배드민턴	예선	8/19~26일	GBK ISTORA	
	준결승	8/22, 27, 28일		
	결승	8/22, 27, 28일		
양궁	예선	8/22~26일	GBK Archery Field	
	준결승	8/27일		
	결승	8/28일		
태권도	예선	8/19~23일	JCC Plenary Hall	
	준결승			
	결승			
탁구	예선	8/26~31일	JIExpo Kemayoran Hall B1, B2, B3	
	준결승	8/28, 30, 9/1일		
	결승	8/28, 30, 9/1일		

우리가 몰랐던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코윈 인도네시아(담당관 이희경)는 지난 7월26일 이슬람금융학 석사이자 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의 양동철 팀장을 초대하여 “우리가 몰랐던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이슬람의 인도네시아”라는 주제의 미니 교양강좌를 개최하였다. 강사 양동철 팀장은 인도네시아인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아랍어원의 단어들, 히잡 착용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예로 들어서 코윈 회원들에게 차츰 강경한 성향을 띄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문화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유연하고 관용적이며 중도적이었던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은 젊고 부유한 고학력자들을 주축으로 정통과 원칙을 찾으려 하는 실험적인 과정에 있으므로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 인도네시아어로 된 요일명이 사실은 아랍어에서 기인했다 합니다. 월요일부터 제1일, 제2일 이렇게 나아간다 하네요. 제6일이 되는 금요일의 Jum' at은 아랍어로 “모이다”라는 의미에 해당된 다 합니다.
- ◆ 요즈음 무슬림(특히 강성)은 코란에 언급되지 않은 율법을 주장하고, 다른 신앙에 대해 대립하려 하는데, 이는 과거 생활과 신앙을 분리하던 인도네시아인의 생활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강사는 유연하고, 관용적이고 중도적이었던 인도네시아식 무슬림이 오히려 정통에 가깝고,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율법적용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에는 종교와 아랍어를 적극적으로 배우며 코란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서양에서는 교육을 덜 받을수록, 경제력이 없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종교에 심취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최근 인도네시아는 고학력 부유한 젊은 층에서 정통 무슬림을 추구하며, 이러한 모습은 인도네시아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견됩니다.

- ◆ 불과 수년 전 까지 히잡을 착용한 여성은 저소득층이거나 가족의 신앙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자의적이기 보다는 타의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실제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인도네시아를 다시 찾은 외국인들의 일성이 “여성들의 히잡 착용이 왜 이리 늘었는가”라 할 만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 손꼽힙니다.
 - ◆ 인도네시아 여성의 히잡 착용이 두가지의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는 패션의 한 가지로 또 하나는 무슬림 율법(샤리아)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착용입니다. 하나 더, 히잡은 질밥과 동일한 의미의 아랍어입니다. 단어 선택 하나에서도 좀 더 무슬림을 지향한다고 보여집니다.
 - ◆ 무슬림에 대한 프라이드를 내세우며 인도네시아인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생활에 낮게 녹아있던 샤리아가 전면에 내세워지는 성향입니다. 인니인을 고용하고 있는 회원분들은 직원들의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시고 사업파트너를 대할 때에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 ‘우리가 몰랐던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강의 요약—

(제공: KOWIN)



민주평통,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지원특위 출범

7월 2일 연석회의 개최,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세안지역회의(부의장이숙진)는 7월 2일 인도네시아 웨스턴자카르타 호텔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등과 연석회의를 갖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한반도에 평화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세안지역회의 지도부와 산하 협의회장, 그리고 협의회별 체육계 대표 위원 등 30명이 함께 했다.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특별히 회의장을 찾아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이숙진 아세안 담당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동남아 남부협의회 송광중 회장과 전민식 고문(인도네시아 한인회 수석부회의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소속 위원에는 윤만영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장(필리핀 평통위원)과 호주협의회 형주백 회장 등 7개 협의회의 회장과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캄보디아 지회장 등이 임명됐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유완영 남북장애인체육교류위원장은 고문으로 위촉됐다.

위원장을 맡게 된 이숙진 아세안 부의장은 “지난 2월 고국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에 즈음해 민주평통 해외협의회의 공공외교역량의 중요성이 고국과 각국에서 각인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 열기를 이번 아시안 게임으로 확대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아세아 지역의 평통 지도자들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통 아시안 게임 지원 특별위원회는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월까지 ▲판문점 선언과 남북 체육회담 합의 사항 이행 방안 지원 ▲평통위원들의 인적자원과 네트워크를 통한 한반도 평화분위기 확산운동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사회의 아시안게임 추진위원회와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통한 민간 차원의 현지 지원 분담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우선 ‘코리아(KOREA)’ 문구가 인쇄된 티셔츠 5천 장과 한반도기가 새겨진 부채와 모자를 충분히 제작해 아시안 게임 개막식 및 남북 단일팀 경기 응원단에게 배포하고, 특별히 개막식에서는 300석의 좌석을 확보하여 대형 한반도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축구 경기 응원의 경우 붉은악마 응원단과의 협조 방안도 모색 중이며 남북한 단일팀 및 북한 장애인대표팀을 위한 이동편의제공, 통역서비스제공, 한식 지원, 기타 자원봉사자 지원을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단체들과 분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또 재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 한인추진위원회, 한인회, 체육회 대표, 공관 및 문화원 대표자들과도 연석 대책회의를 열었다.

특별위원회는 또한 인도네시아 국가 체육회의 토노 스타트만 회장을 예방하고 남북한 단일팀 및 여건이 어려운 북한 장애인팀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어진 평화통일 강연회에서 김덕룡 수석부의장은 “750만의 해외동포가 한반도의 5천만 국민과 연계 협력한다면 국민적 합의에서 평화통일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기에 이번 아시안게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필 기자 dongponews@hanmail.net



양영연 한인회회장

김창범대사



이숙진부의장과 송광중회장



김덕룡 수석부의장



Fujin Teppanyaki & Japanese Whisky (세노파티)

글: 주윤지 (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달 소개해 드린 휘귀는 맛있게 드셨나요? ^^

이번 달에는 일식당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식은 한식 다음으로 한국 분들이 자주 찾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자카르타에서 일식당하면 떠오르는 그 곳, 스시 테이 (Sushi Tei) 가 지겨워 졌을 때, Fujin Teppanyaki를 추천합니다!

이 식당은 정통 일식이 아닌 일식 철판요리 전문점으로, 일본인이 직접 운영한다고 합니다. 다른 퓨전 일식당에 비해 메뉴가 그리 다양한 편은 아닙니다. 진정한 맛집은 메뉴가 적다고 하던데 이 곳이 진정한 맛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Meltique Saikoro Steak (260,000루피아++)가 가격대비 양도 적지 않고 정말 맛있거든요. 메뉴 이름은 스테이크이지만 주사위 크기로 잘려 나와서 먹기에도 편합니다. 보통 어느 식당이든지 스테이크 메뉴를 주문하면 고기 굽기 정도는 손님에게 묻지 않나요? 그런데 이 곳은 묻지 않더군요. 반신반의하면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렸는데 역시나 아주 적당히 잘 구워서 나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부들부들, 야들야들한 큐브 스테이크가 또 먹고 싶어집니다...

Chicken Nanban (85,000루피아++)도 정말 맛있습니다. 보통 일본식 치킨 난반은 튀긴 닭에 타르타르소스를 올리는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철판에 구운 닭에 소스가 올려져 나옵니다. 또 하나, 일반적인 치킨 난반과 달리 이 곳 치킨 난반은 아스파라거스가 곁들여져 나와 음식의 품격을 높여 줍니다.





이 외에 식전 입맛을 돋아주는 Japanese Mushroom Salad(75,000루피아++), 고실고실 철판볶음밥인 Teppanyaki Garlic Rice(S 35,000루피아++, M 60,000루피아++)도 메인 요리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좋습니다.

메인 메뉴 말고도 이 곳의 하이라이트인 디저트! 튀긴 아이스크림(Fried Black Sesame Mochi Ice Cream)을 판다고 해서 찾아 왔는데 역시 인기메뉴라서 그런지 SOLD OUT! 잠시의 실망감을 뒤로 한 채, 그 대신 Fujin Dorayaki(45,000루피아++)를 먹었습니다. 직접 구운 따끈따끈한 미니 팬케이크와 꾸덕꾸덕한 녹차 아이스크림, 이 구성은 절대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지요! 함께 나온 말린 오렌지가 향도 좋고 디저트 플레이팅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음식 맛뿐 만 아니라 심지어 이 식당은 세노파티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도 좋습니다. 물론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단점을 굳이 찾자면, 주말에는 예약없이 식사가 힘듭니다. 저도 발길을 돌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생긴 식당도 아닌데 이 정도의 인기라면 맛은 보장한다는 얘기겠죠? ^^ 참고로 생일인 것을 말하면 철판요리 조리대에서 불쇼를 해줍니다. 아쉽게도 이외에 생일 축하 서비스(무료 디저트 또는 할인)는 제공되지 않네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Fujin Teppanyaki & Japanese Whisky

1. 음식 종류 : 일식
 2. 가격대 : Rp 600,000 / 2인 기준
 3. 영업시간 : 월-일 11:30 ~ 15:00 , 18:00~23:00
 4. 전화번호 : 021-2751-3838
 5. 위치 : Jl.Gunawarman No.21 Senopati Jakarta Selatan
- ※ Zomato 참고



● 야 채 스 프 ●

인간의 음식은 천연 식물들이 가장 몸에 잘 맞는 건강식품이라고 한다. 세계 각국에서 천연 식물에게서 추출한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오늘도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 세계 각국의 천연 약품 개발에 쏟아 붓는 1년의 예산은 우리나라 1년의 예산과 맞먹는다고 한다. 또한 한국에서도 새로운 신약 하나를 개발하여 수출하면 자동차 300만대의 수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한다.

이번 달에는 만병에 듣는다는 “야채스프”를 소개하고자 한다. 야채스프는 예방 의학적 방법이며 현대의학으로 치유 불가능한 암이나 기타 질병에 확실한 효과 있다고 한다.

야채스프는 먹기 시작하고부터 3시간 뒤에는 암세포를 꿈쩍 못하게 하고 죽여버리기까지 한다. 인간은 25세를 지나면 하루에 뇌세포가 10만개씩 줄어들어 치매, 시력장애, 청각장애 등 각종 질병이 생긴다.

여성들의 액세서리는 건강에 아주 위험하다. 몸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머리로부터 명령을 실어 나르는 저주파 전기이다. 이것은 각 신경을 통하여 피부에까지 명령을 실어 나르게 되는데 목걸이나 귀걸이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합선이 되어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목으로부터 아래쪽에는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영향으로 난시나 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활습관이다. 남성도 목걸이나 귀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정력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

여성이 뒷굽이 높은 구두를 신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자칫 벼를 때는 저혈압이 되어 눈앞이 깜깜해지는 수가 있다. 따라서 뒷굽이 높은 신발은 위험하고, 굽이 낮은 신발을 신는 것이 바로 건강에 보탬이 된다.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려면 육류보다 어패류나 야채, 쌀로부터 칼슘을 섭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침, 점심, 저녁에 걸쳐 된장국을 먹고 야채나 해조류 등을 균형있게 먹으면 아무런 병에 걸리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일본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도 매일 된장국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칼슘을 몸에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걸어야 한다. 음식물로 인한 칼슘은 인간의 몸속에서 흡수되진 않고 몸밖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칼슘이 필요하다면 달리기나 가장 좋다고 한다. 결국 장수하는 비결은 걷는 것과 균형있는 식사이다.

그러나 이미 당뇨병, 고혈압, 저혈압이나 만성 췌염 등이 있는 사람은 야채스프를 먹어보자. 녹내장과 백내장을 가진 사람은 야채스프 0.6리터 이상을 10개월 이상 착실히 먹도록 한다. 1년만 먹으면 시력이 20년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치매중에 걸리지 않게 되고 완전한 노화방지, 그러니까 불로장수 약은 이 세상에 없지만 야채스프만은 그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야채스프를 먹는 것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스스로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다. 체세포에 노화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재생능력을 왕성하게 해주는 것이 야채스프이다. 야채스프를 먹은 사람은 감기에도 걸리지 않고 탈모도 줄어든다고 한다.

야채스프에는 특히 암을 예방하는 엽산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야채스프가 암에 뛰어

난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더불어 현미차를 마시게 되면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인슐린과 이뇨효과를 배로 증가시켜 연령을 불문하고 야채스프와 함께 복용하면 건강한 뇌의 작용을 얻을 수가 있으며 신체의 모든 부분이 활성화 되고 젊어지는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심장병 환자가 야채스프와 현미차를 하루에 2.6리터 이상을 20일 이상 먹고 있으면 모든게 정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또한 암에 대한 치유에는 최고의 효과가 있다.

〈 야채스프 만들기 〉

1. 기본 재료

무: 4분의 1개

무잎: 4분의 1개분 (무잎은 잎이 있는 시기에 따라 햇빛이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려 보존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당근: 2분의 1개

우엉: 4분의 1개 (작은 것은 2분의 1개)

표고버섯: 1개 (자연건조한 것. 구입하지 못할 때는 날것을 구입해서 건조시킨다.) 이러한 야채는 유기농 야채를 이용하도록 한다.

2. 조리법

1) 야채는 너무 잘게 썰지 말고 좀 크게 꺾질째 썰도록 한다.

2) 야채의 양에 3배의 물을 붓는다.

3)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하여 1시간동안 더 끓인다.

4) 끓을 때까지 뚜껑을 열지 않는다.

5) 야채스프가 완성되면 유리병에 넣어 차 대신 마신다. 그리고 남아있는 야채는 그대로 먹는다.

3. 주의사항

1) 야채는 화일에 싸두거나 물에 담가두면 안된다.

2) 냄비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이나 내열유리로 만든 것을 사용한다.

3) 야채스프의 보존은 유리그릇이나 유리병을 사용한다.

법랑이나 기타 화학적으로 가공한 냄비는 결코 사용하면 안된다.

4) 야채스프를 너무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느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기본 양을 지켜야 한다.

5) 다른 약초나 식물들을 혼합해서는 안된다.

6) 맛을 내기 위해 벌꿀을 첨가하는 것은 괜찮다.

야채스프를 먹기 시작하면 일시적으로 가렵거나 눈이 침침할 수도 있으나 2~3일이면 없어진다. 신체의 컨디션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어갈 때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것 같은 호변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 야채스프를 먹고 질병이 낫는 기간 〉

1. 암세포는 3일후 그치고, 기능 회복에 3개월이 걸림

2. 위와 십이지장염 및 간경화 등은 3~10일이면 좋아지고 기능회복에 1개월

3. 고혈압, 무릎관절염은 1개월이면 좋아짐

4. 안과의 백내장과 녹내장은 4개월이상 걸리지만 모두 1개월에서 1년 사이에 좋아짐

5. 불면증, 만성피로 등은 10~20일이면 효과

6. 아토피성 피부염은 4개월~1년

7. 신경통, 류마치스, 무릎관절염은 6개월~1년

8. 심장질환, 부정맥은 20일

9. 심장병, 고혈압 및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먹고 있는 사람은 1~2개월후 서서히 약을 끊음

10. 통풍은 2주 정도.

천연 야채를 사용한 야채스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 몸에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주위에 말기 암의 환자에게는 야채스프를 소개하여 완쾌되는 모습을 보시기를 권한다.

참고문헌: 웰빙 야채스프 건강법 다페이지가즈 지음

(제공: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등대마을에 대한 단상



하 연 수 / 한국문협 인니지부 감사

ysha@seolin.co.id

우리 집안 고모님의 작은 후원활동 동지였던 내가 영국 신발연구소(SATRA) 출장 중에 고모님의 부고 소식을 받았다.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던 그 미안한 마음을 부담처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었던 내가 이제 고모님 생전에 삶의 현장을 다시 느껴 보려고 이번 라마단 휴일을 맞아 경주에 도착해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동경주 전촌에서 31번 국도로 들어섰다. 고모님이 수도없이 다니셨던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보며 달리는 31번 국도다. 고모님이 등대마을로 시집가기 전 친정 집 세월을 빼고 60년 세월동안 희로애락의 날들이 묻어져 나오는 길이다. 그 60년의 전반 25년은 등대 마을 가문 종손 며느리로, 바다 밑 돌 미역 밭을 지키고, 가문의 대를 이어줄 아이를 유산으로 잃고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만 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지성으로 다녔던 세월이다. 전반의 25년세월은 고모님 자신만을 위한 기도의 세월이었다.

후반 35년 세월, 인생에는 또 다른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된 고모님은 스스로 아끼는 것들을 남에게 줄 때 마음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보람의 의미, 그 느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후반의 세월은 고모님이 남을 위한 기도의 시절인 셈이다.

소나무 숲을 지나 등대와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버스를 내리니 곧 비가 올 듯한 날씨에 흐릿한 등대마을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옛날 등대마을이 이제 많이 변해 있었다. 새 집들이 드문드문 들어서 있고 방학 때마다 와서 등대와 바다를 바라보고 했던 고모네 집 사랑 채 마루도 더 이상 없었다. 세월이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고 있다. 20년 전 돌 미역 밭 유산에 불만이 있으나 장손인 고모님이 무서워 말 한마디 못 하던 형제들이었는데 2남, 3남이 분배가 너무 공평하지 않았다며 그들의 몫으로 절반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고모부님 미역 밭도 원래 유산은 지금의 절반이고 그 당시 유산 분할 시에는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 큰 차이는 아니었다고 했다. 나머지는 고모부님 스스로 노력해서 일구어 낸 것이라고 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억지를 부려보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 수록 욕심을 부렸다. 물론 그들도 유산을 받았는데도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였다.

정이 많고 마음이 부드러운 고모부님을 두 동생들이 더 이상 어렵거나 무서워하지도 않았다. 더 나쁜 것은 고모부님 건강상태까지 좋지 않은 때를 기회로 삼아 행패를 부린 동생들의 야비함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고모님은 분노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뺏으려고 싸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 밥 그릇을 불법 강제로 빼앗아 가려는 도둑놈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것도 최고 형량으로 받게 할 것이다. 내게 행사한 당신들의 폭력 때문에 죽은 아이에게 사죄를 이것으로 하게 만들겠다.” 고모님이 눈물로 한 선전포고였다.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고모님은 본격적으로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염치 불구하고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다. 곱상하고 착했던 고모님은 점점 변호사처럼 변해갔고 문중과 형제들에게는 법의 잣대를 가차없이 들이대겠다는 전사로 거듭났다.



친정에서 화초처럼 아름다운 꿈이나 꾸며 자랐던 고모님이 그런 험한 곳으로 시집와 시련과 단련을 받게 된 것이 고모님의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고모님은 처음부터 강하게 바로잡겠다는 뜻이 큰 돈 들여 지방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변호사 두 사람 고용하고 경찰에게 보호를 요청해 둔 후 대담하고 과감한 방법으로 돌미역 받을 강탈하려는 사람들을 밀어붙였다. 고모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들을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냈다. 문중 사람들과 형제들이 감옥을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란 이들이 화해하자며 물러났으나 고모님의 반응은 싸늘했다. 변호사, 경찰 호출이 잇따르자 이들은 고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백배 사죄했다. 결국 고모님은 변호사 앞에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문서에 도장을 찍은 후 고소를 취하해 주었다. 돌미역 받 분쟁이 끝나고 대를 이을 아이 다시 한번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열심히 다녔으나 부처도 삼신 할머니도 하느님도 아이를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었다. 조용히 석굴암을 다녀온 어느 가을 오후, 신라문화제 예행 연습이 진행 중이던 경주 역 앞 성동시장 근처 큰 길, 구경꾼들 그림자 뒤 길가에서 생선을 팔고 있는 20대 중반 생선 장수 여인의 모습을 본 고모님은 온몸에 전류가 흐르더라고 했다.

은행 나무 가로수에 매단 긴 줄에 몸이 묶인 채 청얼거리고 있는 두 살배기 아들, 팔지 못한 가지미, 갈치, 꽂치가 가득 담겨있는 큰 고무대야 위로 쇠파리들만 무더기로 몰려들고 있었고 고개를 내린 채 가끔 “생선...” 이라고 들릴 듯 말 듯 웅얼거리는 그 여인,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고모님은 “그렇게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웅얼거리다가 하루 중일 한 마리도 못 팔 것이다.” 라며 생선 장수 여인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후 시장 안 생선가게로 가서 본전에 여인의 생선 을 모두 넘겨버린 후 여인과 아이를 데리고 시장 안 국밥집으로 갔다. 국밥 그릇 앞에 한참 고개를 떨구고

있던 여인이 겨우 입을 열었다. 자신이 경리직원
으로 일했던 건설회사 현장에서 자재 관리를 했던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결혼 3년째 되던 해 남
편이 갑자기 무너지는 철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
다. 머리를 크게 다친 남편은 식물 인간이 되어 병
원에 누워있고 자신은 동서남북으로 병원비 마련
을 위해 뛰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하는 수없이
생선 장사를 시작했고 그 날이 바로 첫 날이었다
고 했다. 20년 동안 한번도 남을 위한 기도라고는
해 본적 없었던 고모님이 시장 국밥 집 평상에 쫓
아 앉아 참회하고 평생 처음으로 남을 위한 기도
를 올렸다고 했다. 이 인연이 고모님으로 하여금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작은 후원을 약속
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하게 해 달라고 간절
히 기도를 올렸다.

그 아이가 커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해 고
모님은 내게 기술학교를 찾아서 그 학교 교문 앞
까지만 데려다 주라고 했다. 나는 그 아이를 데리
고 한 번도 가 본적 없었던 경상북도 직업훈련 교
육원으로 찾아갔다. 외진 곳에 무슨 공단 부지처
럼 넓은 터에 직업 훈련 교육원이 자리잡고 있었
다. 입구에서 본관 건물까지 꽤 멀어 보였고 거기
까지 넓은 길이 만들어져 있었다.

두려운 눈으로 교육원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는
소년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이제 너는 너 혼자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
다. 여기서 너와 너의 어머니가 앞으로 먹고 살아
갈 기술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 기계제작, 용접 전
자, 고무, 화학 배합기술, 자동차 수리, 도자기 기
술, 등 뭐든지 너 적성에 맞는 기술을 찾을 수 있
다. 이제 너에게 등대 마을 할머니는 없다. 지금부
터는 스스로 길을 찾으며 가야한다. 자, 절대 돌아
보지 말고 가라. 그때까지 나는 여기에 서 있을 거
다.” 본관 건물을 향해 걸어가던 소년이 두 번 정

도 멈춰 설 때마다 내 가슴이 조마조마 했는데 건
물입구 문 앞에서 소년이 멈춰 섰다. 그 몇 초 되지
않았을 그 순간이 참으로 길게 느껴졌다. 잠시 멈
춰 서 있던 소년이 나와와 약속을 지키려는 듯 돌
아보지 않고 그대로 건물 안으로 사라져갔다. 나
는 긴 한 숨을 쉰 후 돌아서 나왔다.

생선장수 여인을 만났던 그 날 이후 고모님은 어
려운 처지의 젊은 과부를 찾아 이리 저리 수소문
해 놓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돌미역 팔 바
위 닦기, 포자 유착, 돌미역 채취 일을 책임지고 해
주는 해너 지도자가 해너 마을로 찾아온 젊은 과
부를 소개했다. 고모님은 고모부와 젊은 여인 상
견례를 주선한 후 작은 댁으로 앉혀 아이와 함께
아래 채에 살게 해 주었다.

그것은 여인의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남편의 사
랑, 아내의 자리, 대를 이어줄 후계자 출산, 양육
까지 내 주는 일이었다. 결국 고모님 당신의 많은
것을 내 주는 큰 용단으로 등대 마을 문중 대를 이
어 갈 남자 아이 둘을 낳게 해 주었고 당신께서는
중손 며느리 자리를 지키며 남을 위한 기도와 보
이지 않게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다 가셨다.
이 절벽 위 등대에 비추어지는 아름다운 아침, 황
홀한 저녁놀, 긴 장마, 차가운 겨울 바람 등은 모
두 자연의 법칙이다. 어느 하나도 등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이 등대는 바람이 불
던 비가 오던 관계없이 낮에는 하얀 등대 색으로
밤에는 붉은 불빛으로 먼 바다 배들에게 길잡이
가 되어준다. 그것이 등대의 의미요 값어치다. 고
모님의 운명도 자연의 법칙이라 고모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어느 날 알게 되었고
자신의 운명이 가혹하던 그렇지 않던 자신의 그날
그날의 삶을 아끼고 보듬고 사랑했던 아름다운 삶
이 아니었다 생각해본다. 고모님의 삶이야 말로
이 말없는 등대처럼 의미와 가치가 충분히 있었음
이라 믿어진다.

김준규 시인 신인상 수상

7월 1일, 오후 5시 대구시내 위치한 프린스 호텔에서 「계간 문장」 신인상 수상식을 가졌다. 이번에는 특별히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회원인 김준규 시인의 시 ‘질경이’ 외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 되었다.

이 자리에서 장호병 발행인은 “신인상 수상은 일생에서 단, 한 번 뿐인 통과 의례이자 문학의 친정을 가지는 일이다” 라고 수상자를 격려하였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윤배 시인은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붓끝을 주문하며 더욱 창작에 게을리 하지 말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정호승 시인이 “시와 산문의 경계는 어디인가?” 라는 주제로 특강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적도문학상 시 부문 심사를 해 주신 공광규시인이 참석하여 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와 의 든든한 인연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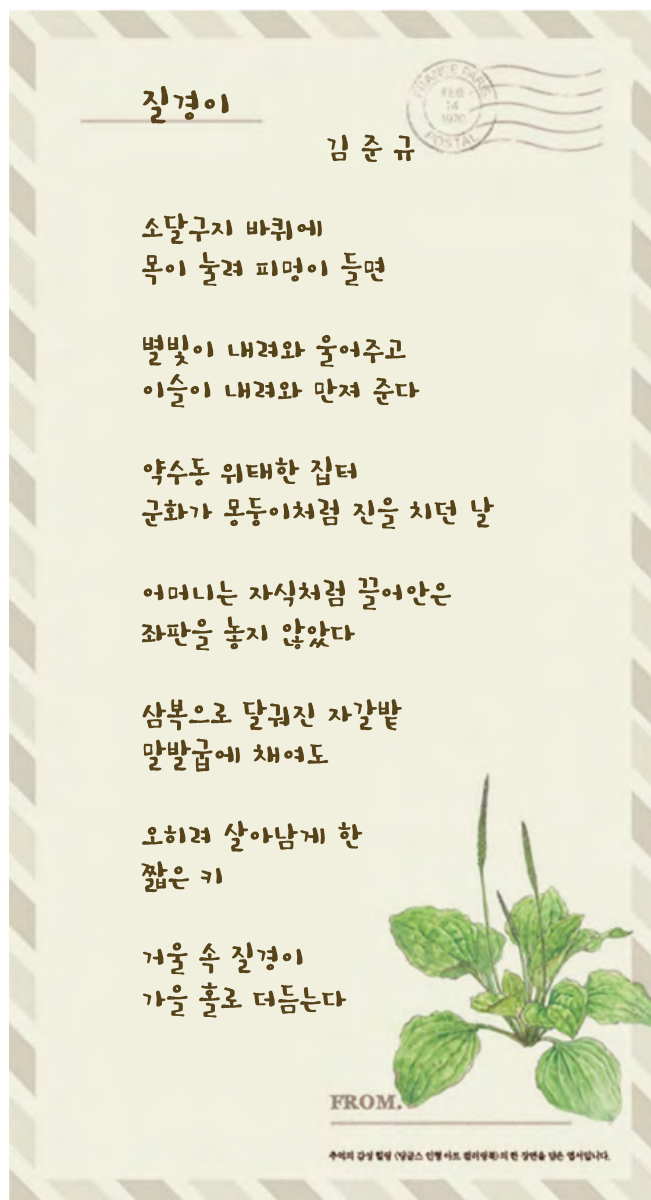


“고향을 떠나, 반세기 동안 비즈니스맨으로 살아오며 늘 자신의 꿈을 숨겨온 삶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것이 바탕이 되어 어린 시절 저의 꿈과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문학에 입문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계기를 만들어 주신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의 서미숙 회장님과 회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인 김준규의 수상소감 중



<기사제공 :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인도네시아어



대박 한국어학원장 박경재
gurubahasakorea@gmail.com

안녕하십니까? 교민 여러분, 한 달간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인도네시아 날씨가 예전보다 조금 습해지는 것을 조금씩 느낍니다. 아마도 조만간 우기철로 접어드려는 모양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나와 살면서 별로 아픈 적이 없었는데 이번 에 홍역을 치르는 것처럼 크게 아팠습니다. 온몸이 쭈시면서 목도 아프고 열, 기침, 콧물 등등 꼬박 이틀을 앓아 누워야 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인도네시아어로 말해야 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번 칼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플 때 쓰는 말로 “Sakit”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체의 부위에 따라 “Sakit” 을 쓰는 경우도 있고 다른 단어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단어들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혹시라도 아프실 때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건강한 것이 제일 좋지만 사람이 안 아플 수가 없으니 비상시에 대비해 여러 표현들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체 각 부위별로 아픈 증상에 대한 표현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머리

보통 머리가 아플 때는 한국어로 “두통”, 인도네시아어로는 “sakit kepala”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머리 한쪽만 아픈 편두통의 경우 영어에서 차용된 “migrain” 이나 “sakit kepala sebelah” 라고 말합니다.

–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아.”

(Kepala saya benar-benar sakit. 또는 Kepala saya seperti mau pecah.)

2. 눈

눈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따끔따끔할 경우 “kelilipan”

–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간지러워 죽겠어.” (Saya kelilipan nih. Gatal banget.)

3. 코

코가 막혔을 때 “Hidungnya mampat.”, 코피가 많이 났을 경우 “Mimisannya banyak.”
코 안이 헐었을 경우 “Hidungnya perih.”, 코 안쪽에 여드름이 났을 경우 “Jerawatan di dalam hidung.”

– “코가 막혀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와.”

(Karena hidungnya mampat suara saya jadi bindeng.)

4. 입

구내염, 입안이 헐었을 경우 “Saya lagi sariawan.”, 혀바늘이 돋았을 경우 “Saya lagi sariawan di lidah.”, 이가 아픈 경우 “Saya sakit gigi.”, 잇몸이 아픈 경우 “Gusi saya sakit.”, 이가 썩었을 경우 “Gigi saya bolong.”, 이가 부러진 경우 “Gigi saya patah.”, 풍치가 있는(이가 시린) 경우 “Gigi saya ngilu.”

– “입안이 헐어서 밥 먹을 때마다 아파. 매운 건 아예 못 먹겠어.”

(Saya sama sekali tidak bisa makan yang pedas. Setiap kali makan mulut saya sakit karena sariawan.)

5. 귀

이명 현상,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 경우 “Berdengung”, 고막이 찢어진 경우 “Gendang telinganya sobek.”, 중이염일 경우 “Infeksi telinga 또는 radang telinga”

–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Telinga saya berdengung.)

6. 목

목이 빠근한 경우 “Lehernya pegal 또는 kaku”, 목구멍이 아픈 경우 “Sakit tenggorokan”, 목에서 가래가 나오는 경우 “berdahak”, 목이 쉰 경우 “hilang suara”, 편도선이 부어서 침만 삼켜도 아픈 경우 “menelan ludah pun sakit karena amandel saya bengkak.”, 목이 간지러울 경우 “gatal tenggorokan”, 기침하면서 피가 나올 경우 “batuk berdarah”

– “미안해, 나 목소리가 안 나와.” (Maaf, suaraku hilang.)

7. 어깨

어깨가 무겁다고 느껴질 경우 “Bahu(pundak) saya terasa berat.”, 어깨 때문에 팔을 돌리지 못할 경우 “Tangan saya tidak bisa diputar karena bahu saya sakit.”, 오십견 “bahu beku (frozen shoulder)”

– “나 요즘 오십견이 왔나봐.”

(Akhir-akhir ini sepertinya bahu saya membeku, sepertinya saya sudah tua.)

8. 가슴

가슴이 답답할 경우 “Dada saya sesak. 또는 sesak nafas”, 가슴에 뭔가 막혔다고 느낄 경우(체한 경우) “Seperti ada yang tersangkut di dada.”, 심장질환-가슴이 찌릿할 경우 “Jantung saya sakit seperti ditusuk-tusuk.”, 천식일 경우 “Asma”
- “나 (울)화병이 도졌어.” (Hwa-byung(Anger Syndrome) saya kambuh.)

9. 배

배가 아픈 경우 “sakit perut”, 소화가 잘 안되는 경우 “Pencernaannya terganggu.”, 윗배(아랫배)가 쭈시듯이 아픈 경우 “Nyeri perut bagian atas(bawah)”, 신장(콩팥)이 아픈 경우 “sakit ginjal”, 장염이 난 경우 “Infeksi pencernaan”, 설사를 할 경우 “Diare”, 배에서 자주 소리가 나는 경우 “sering ada bunyi dari perut saya”
- “나 위염이 있어서 밥 못 먹어.” (Saya sedang sakit maag, tidak bisa makan.)

10. 팔

팔꿈치가 아리는 경우 “Sikutnya ngilu”, 손목이 시큰시큰한 경우 “Pergelangan tangannya senut-senut.”, 손가락 마디에 통증이 있는 경우 “Persendian buku jari saya sakit.”, 손이 저린 경우 “Tangan saya keram.”

11. 다리

다리가 부러진 경우 “Patah kaki”, 무릎이 쭈시는 경우 “nyeri lutut”, 걸을 때 절뚝거리는 경우 “berjalan pincang”, 발목을 접질렀을(뺨) 경우 “keseleo pergelangan kaki 또는 kaki terkilir”
- “나 뼈에 금 갔어.” (Tulangku retak.)

12. 상처

상처가 심하게 벌어진 경우 “Luka parah”, 상처가 따끔거릴 경우 “lukanya perih”, 가시가 손톱 밑으로 들어간 경우 “kesusupan duri”, 화상을 입은 경우 “luka bakar”, 꿰메야 하는 상처의 경우 “luka yang harus dijahit”, 꿰멘 상처가 벌어진 경우 “jahitannya terbuka”, 흉터가 남을 경우 “lukanya berbekas”, 상처를 소독해야 하는 경우 “lukanya harus steril”, 상처가 감염된 경우 “luka infeksi”, 고름이 나는 경우 “bernanah”, 찰과상 “luka baret”, 절창(베인 상처) “luka sayat”, 자상(찔린 상처) “luka tusuk”, 타박상 “luka memar”, 물집 “lecet”, 화상 때문에 생긴 물집 “melepuh”

13. 질병

고혈압 “darah tinggi”, 저혈압 “darah rendah”, 당뇨 “diabetes”, 결핵 “TBC”, 편도염 “Radang amandel”, 축농증 “Sinusitis”, 안구염 “Infeksi/radang mata”, (중)이염 “Infeksi/radang telinga”, 구강염 “Infeksi/radang mulut”, 인두염 “Infeksi/radang tenggorokan”, 폐렴 “Infeksi/radang paru-paru”, Infeksi/radang lambung”, 장염 “Infeksi/radang usus”, 위장염(식중독) “Infeksi/radang pencernaan”, 충수염(맹장염) “Infeksi/radang usus buntu”, 신장결석 “Penyakit batu ginjal”, 만성 신장질환 “Penyakit gagal ginjal”, 간염 “Hepatitis / Infeksi hati”, 방광염 “Infeksi kandung kemih”, 치질 “Ambeien / Penyakit wasir”, 관절염 “Radang sendi”, 기관지염 “Infeksi/radang saluran pernapasan”, 허리디스크 “Herniasi diskus”, 목디스크 “Herniasi tulang leher”

● Radang은 주로 열과 림프 계통이 붓거나 피, 고름 등이 나오는 질병에 사용되고 Infeksi는 Radang과 그외 대부분의 질병들에 사용할 수 있는데 Radang보다 증상이 더 심한 경우에 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 보니 정말 다양한 단어와 표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서 생긴 의문점을 바탕으로 찾은 표현과 단어들이므로 완벽하게 다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정리한 인도네시아어에 계신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지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적도! 뜨거운 태양의 심장을 선물 받다!



글: 김동걸 (한인니문화연구원 국제교류팀)

적계는 10년에서 많게는 30년이 넘는 세월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낸 선배님들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내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6년 1개월의 시간을 돌이켜보며, 다른 피부, 언어, 성격을 지닌 하지만 미소만 지어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적어보려 한다.
이 글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글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처음 인도네시아에 발을 들이기 약 6개월 전부터 당시엔 그리 많지도 않았던 인도네시아 관련 서적, 해외저자가 쓴 책을 포함 2~3권 정도의 책을 읽고, Bahasa Indonesia 공부를 위해 ‘초보 인도네시아어’ 책을 수험생이 된 기분으로 두 번 끝내고 인도네시아 행 비행기를 탔다. 지금도 잊지 않는 가장 긴 문장이 있다.

“Saya senang sekali bertemu dengan anda.”
(나는 당신을 만나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안타깝

게도 나는 인니 체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좋은 말을...

돌아보면 나는 처음 인니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인도네시아의 좋은 점을 기억하기보다는, 유의사항을 더 많이 신경 썼던 것 같다.

‘아이들의 머리를 손으로 만지면 안 되며, 실제 만졌다가 보복을 당한 경우가 있다.’,

‘사람들과 악수를 할 때나 물건을 건넬 때 왼손을 쓰면 안 된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선 절대로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오토바이 소매치기를 조심해라!’ , 누가 들어도 조심해야 할 일들.

‘하면 안 된다!’ 만 머릿속에 남겼던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열린 마음으로 첫발을 내 디을 수 있었겠는가! 겁먹은 개처럼 경계와 의심의 눈빛으로 공항을 빠져나온 기억이 생생하다.

하지만 나의 두려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첫 외출을 위해 아파트 로비에서 택시를 잡으려 했다. ‘Tolong Pangilkan...’, ‘Tolong Pangilin...’ 이게 뭐라고 문법에 신경 쓰며 조금이라도 똑똑해 보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파트 경비원이 웃으며 다가와 한마디 건넸다. “TAXI(딱씨)?”

복잡했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생각했던 것보다 단순하고,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경비원 ‘Pak. Ahmad’의 표정에서 동네 아저씨의 푸근한 미소를 보았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니 사람들에 대한 글로 배운 쓸데없는 지식의 장벽이 한 번에 무너졌다. 미소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대형 몰에 있는 식료품점에서 장을 보다 아파트 뒤편에 있는 재래시장엘 가보았다. 인니채류 한 달 쯤 지난 후였다.

활기찬 시장의 모습은 한국이나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단, 육류와 생선에 꼬인 파리와 시장바닥의 오물은 그다지 반가운 모습은 아니었다.

채소라도 건질 생각으로 주변을 살피던 중 채반 가득 싱싱하게 수북이 쌓여 있는 숙주나물을 발견했다. 한국의 재래시장을 떠올리며, 가격을 깎아볼 요량으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Harga lokal?”, “Lima ribu” 한국 돈 4백원, 깎기도 민망했다. 숙주 한바가지를 담고, 한줌 가득 더 넣어주시며 앞니가 네 개나 없으면서도 묘기를 부리듯 담배를 물고 웃어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 뒤로 싱싱한 숙주나물은 그 할아버지 가게에서 구입하곤 했다.

누구나 그렇듯 항상 웃을 일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비즈니스와는 별개로 한국교민들은 흔히 ‘인도네시아 3대복(大福)’이라고 하는 ‘집복’, ‘기사복’, ‘가정부복’. 이 3가지의 복이 갖추어지면, 속상할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인니생활 6개월 만에 당시 중고차가격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다는 ‘T’ 사 ‘Kijang Inova’를 구입했다. (실제로 2018년 3월 차량을 되 팔 때 생각보다 가격을 잘 받은 것 같다) 그리고 차를 구입했으니 기사를 알아봐야 했다. 선배들의 조언은 이랬다.

‘젊은 미혼 기사는 결근 및 지각을 잘 한다.(연애를 하는 경우 더 심하다)’, ‘자녀가 많은 기사는 돈을 꾸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자녀 교육비)’

‘나이가 많은 기사는 체력이 약해 금식기간에 운전이 위험하다.(졸음운전)’ 웃음만 나오는 상황이지만, 뽀기라도 잘 하자는 심정으로 2~3명 정도 면접을 본 후 기사를 구했다. 간혹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기사들도 있었으므로 나는 GPS도 구입해 두어 달 의심의 눈초리로 촉각을 곤두세우며, 기사를 지켜보았다. 그러는 동안 타들어 가는 것은 내 속이라는 걸 깨달았다. 모든 걸 내려놓고 기사를 믿고 따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기사 역시 내 마음을 그대로 읽고 있었는지, 그 전보다 나를 대하는 모습이 밝아졌다.

이십전십이라고 했던가, 사람의 마음은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같은 것이라는 걸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 뒤로 약 2년을 더 일하다가, 기사가 보고르로 이사를 가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던 Pak Izudin의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마음과 미소는 잊히지 않는다.

언젠가 외출하던 중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차에 오르기까지 몇 번의 인사를 하게 되는지 세어본 적이 있다. 엘리베이터가 로비 층에 다다르면, 아파트 복도를 청소하는 직원과 인사를 나눈다. 그리고 복도 한 쪽의 경비와 인사, 로비에 다다르면 최소한 2명의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게 된다. 차를 기다리다 오르기 전 로비 바깥쪽에서 일을 보는 직원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차에 오르면

기사와 인사를 하게 된다. 이웃주민이라도 만나게 되면 또 한 번의 인사가 추가 된다. 한 번의 외출로 최소한 5~6명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이 한동안은 쑥스럽고 귀찮게 생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인사에 화답하며 Mr. Kim이라는 호칭을 즐기게 된 후부터는 내가 먼저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드물게 있을 법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서 있었을 까, 그렇게도 바라던 첫 아이, 그리고 두 살 터울 둘째 아이까지 인도네시아 적도의 태양으로부터 너무도 감사한 선물을 받았다. 썬(Sun)으로부터 썬(Son)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요즘말로 자식 농사 점수로도 후한 점수는 아니지만, 최소한 내

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고마운 선물이었다. 이 고마운 일을 가능케 해준 것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검게 그을린 피부에서도 감추어지지 않는 자연스런 미소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내 자신이 함께 일구어낸 결실이란 믿음엔 의심이 없다.(아내의 덕은 말할 것도...)

나는 지금 경북 봉화군의 한적한 시골마을에 귀촌을 한지 이제 한 달이 되어간다. 아직은 인도네시아의 뜨거운 심장, 그 미소가 매일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 사이로 그려진다.

한동안 아니 평생을 나는 그 그리움으로 밤하늘을 바라볼 지도 모른다.

그리운 인도네시아를, 그리운 태양의 미소들을.....





제 9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공모

1. 주제 : 인도네시아 이야기
2. 원고 모집 기간 : 2018년 7월~2018년 8월 31일
3. 원고 작성 기준 : 산문 부문 A4 3쪽~5쪽 / 시 부문 2편 이상
 - 순수 창작물(이미 발표되었거나 표절 작품은 당선이 취소 됨)
 - 맑은 고딕, 10 포인트, 행간 160%로 작성
4. 대상 : 학생(만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일반인(성인)
5. 보내실 곳 : ikcskr@gmail.com과 indonesiastory@hotmail.com로 동시 송부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표기
6. 시상식 및 문화행사 : 추후공지
7. 등단 기회부여 : 성인부 대상 (한국문예지)
8. 시상 내역

상명	성 인 부		학 생 부		시상내역
	인 원	시 상	인 원	시 상	
대상	1	주인니한국대사상	1	주ASEAN 대사상	상장과 부상
최우수상	1	재인니한인회장상	1	재인니상공회의소회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	1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장상	1	KOICA 소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	1	한인니문화연구원장상	1	자카르타경제신문사상	상장과 부상
특별상	1	한인기업상	1	인문창작클럽회장상	상장과 부상
특별상	1	물타돌리상	1	인니예술가 Widayanto상	상장과 부상
장려상	1	한인니문화연구원상	1	한인니문화연구원상	상장과 부상

문의처 : 0816-190-9976 / 081-875-6217

sagongjkt@gmail.com / jemmachae@hotmail.com

주최:



아름다운공동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후원: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한국문화원



한인상공회의소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PT. TAEWON INDONESIA / PT. CIPTA ORION METAL



인도네시아 회사법 (10)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7.19. 주주총회(Rapat Umum Pemegang Saham/ RUPS)

주주총회(RUPS/에르 우 빼 에스/Rapat Umum Pemegang Saham/라뽀 움 움 빼메강 사함)는 문자 그대로 주식회사(PT/빠떼/Perseroan Terbatas/빠르세로안 떠르바다스)의 주인인 주주(Pemegang Saham)들이 모여서 주식회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이다. 법적으로 설명하면 RUPS란 주식회사에 관한 2007년 법률 제40호 (“주식회사법”)과 주식회사의 정관에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Direksi) 혹은 감사회(Dewan Komisaris)에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쥐고 있는 주식회사의 기구를 의미한다.(주식회사법 제1장 총칙 제1조) 달리 말하면 RUPS는 주식회사법과 주식회사의 정관에 저촉되지 않은 한 이사회와 감사회의 직무에 속하지 않은 회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 의결 기구라는 뜻이다. 최고의 의결 기구란 이 기구에서 주식회사법과 정관에 근거하여 어떠한 사항을 결의하면 회사의 다른 기구는 필히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은 RUPS 개최에 관한 형식 요건, 즉, 절차와 RUPS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에 통보할 것을 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불법행위로 간주되면 민법 제1365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킨다. 주식회사의 RUPS는 인체에 비하면 뇌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7.19.1. RUPS의 권한

7.19.1.1. 주식회사법과 주식회사의 정관에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Direksi) 혹은 감사회(Dewan Komisaris)에 주어지지 않은 모든 권한이 있다.

7.19.1.2.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이 있다.
7.19.1.3. 증자, 감자, 해산, 파산청구, 합병 여부를 결의하는 권한이 있다.

7.19.1.4.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에 대한 선임 및 개선 권한이 있다.

7.19.1.5. 유보금 및 이익금 배당 여부를 결의하는 권한이 있다.

7.19.1.6. 이사회가 상정한 전년도 사업 보고서와 신년도 사업 계획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권한이 있다.

7.19.1.7. RUPS 소집서에 명시되지 안건 상정은 발행주식 100% 참석과 참석 주식 100% 찬성시에만 상정이 가능하며, RUPS 소집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금하며, 반드시 참석 주주 100% 동의시에만 가결이 가능하다. 단 1(일)%의 반대만 있어도 가결을 금한다.

7.19.1.8. 기타 주식회사법 혹은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는 권한이 있다.

7.19.2. 주주(Pemegang Saham)의 권한

7.19.2.1. RUPS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게 질의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서는 주주 개인 신분으로는 주주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으며, RUPS를 통해서만 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7.19.2.2. RUPS의 결의에 따라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7.19.2.3. 회사에서 신 주식을 발행 시 우선 매입권이 있다.

7.19.2.4. RUPS, 이사회 혹은 감사회에서 취한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손



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사회는 의무적으로 매년 회계연도 마감 6개월 이내에 연례 주주총회 (RUPS Tahunan)를 소집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신년 사업계획서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주식회사법과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단 1(한)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RUPS Tahunan을 소집하지 않은 이사회는 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민법 제1365조에 규정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사회는 경영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직무가 부여된 감사회가 이사회는 불법행위를 묵과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7.19.2.5. 정관 개정이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작성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회사의 순수 자산의 50(오십)% 이상을 양도하거나 담보하는 경우나, 합병 혹은 분리하는 경우에 주주 혹은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되어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공정한 시가에 회사에게 매입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다. “예”를 들면 흑자를 내는 A사와 적자를 내는 B사의 대주주인 C씨가 양사의 대주주인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절세목적으로 B사를 A사에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A사의 소주주인 D씨는 자신의 주식을 A사가 정상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씨의 요구를

A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D씨는 주식회사법 제 62조에 근거 하여 A사를 상대로 주식매입 소송을 청구하여 자신의 권리침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7.19.2.6. 발행주식의 10(십)%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한)명 혹은 다수의 주주는 안건을 밝히고 RUPS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7.19.3. RUPS의 종류

7.19.3.1. RUPS는 연례 주주총회(RUPS Tahunan/에르우빠에스 따훈안)과 임시주주총회(RUPS Luar Biasa/에르우빠에스 루아르 비아사)가 있다.

7.19.3.2. RUPS Tahunan은 아무리 늦어도 회계연도 종료 6개월 이내에 최해야 하며 RUPS Luar Biasa는 회사 혹은 주주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7.19.4. RUPS Tahunan(연례 주주총회)

7.19.4.1. RUPS Tahunan의 주요 안건은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에 대한 승인 여부와 신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여부이다.

7.19.4.2. 이사회는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먼저 감사회의 검토를 마친 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이사회가 i) 회계연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RUPS Tahunan을 개최하지 않았거나, ii) RUPS Tahunan을 개최하였으나 지난 회계연도 사업실적보고서를 RUPS Tahunan에 상정하지 않았거나, iii) 상정하였으나 RUPS Tahunan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난 회계연도의 모든 적자는 전체 이사회원의 연대 책임으로 남는다. 1(일)인 사장의 경우에는 사장이 회사의 모든 적자를 개인적으로 혼자 책임져야 한다.

7.19.4.3. RUPS Tahunan에 상정하는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내용은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7.19.4.3.1. 인도네시아 일반회계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7.19.4.3.2. 회사 활동에 관한 보고서

7.19.4.3.3.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 이행에 관한 보고서

7.19.4.3.4. 지난 한 해 동안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항들

7.19.4.3.5. 감사회의 감사 업무 보고

7.19.4.3.6.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 명단

7.19.4.3.7.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급여 및 채수당 명세

7.19.4.3.8.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에는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

7.19.4.3.9. 상기 사업 실적보고서는 주주가 자유롭게 검사할 수 있도록 RUPS Tahunan 소집 일부터 회사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7.19.4.3.10. 다음 열거한 사항 중 한 사항에 해당되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7.19.4.3.10.1. 사회 다수인의 자금을 모금 혹은 관리하는 회사

7.19.4.3.10.2. 일반에게 회사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

7.19.4.3.10.3. 상장된 회사

7.19.4.3.10.4. 국영 기업체

7.19.4.3.10.5. 보유 자산 및/혹은 매출이 500억 Rupiah 이상인 회사

7.19.4.3.10.6. 관계법규로 지정된 회사

7.19.4.3.11. 이 “7.19.4.3.10..항”에 해당되는 회사의 재무보고서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RUPS Tahunan에서 승인해주는 것을 금한다.

7.19.4.3.12. 이사회에서 상정한 재무제표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 전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까끼 리마

글: 류제천(반동거주)

인도네시아의 도시에서는 어디를 가나 한국의 포장마차에 해당하는 이동식 소형 점포 ‘까끼 리마’를 많이 볼 수 있다. 생김새를 보면 창고 용도로 만든 직육면체의 몸통에 문이 달려 있고, 그 위에 3면을 유리로 가림막을 세웠으며 꼭대기에는 뚜껑이 지붕처럼 덮여있다. 그리고 몸통 아래에는 이동을 위한 고정축의 큰 앞바퀴 두 개와 회전축의 작은 뒷바퀴 한 개가 달려 있다. 곁에는 이곳의 대표 메뉴를 적어 놓아서 무슨 음식을 파는지 멀리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음료나 과일 주스 또는 음식물을 팔기 위한 포장마차이니 장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실려 있다. 식재료는 물론이고 숟, 칼, 도마 등의 조리를 위한 도구와 조리용 연료인 부탄가스 통과 버너도 필수품이다. 음식물 판매 후에는 설거지가 필요하니 물이 담긴 물통과 행주 등도 있으며 제일 중요한 돈통도 서랍식으로 달려 있다. 한마디로 작은 이동식 가게인 셈이다.

장사가 잘 되려면 우선 음식의 맛이 좋아야 하고 또한 수요자가 많은 목이 좋은 곳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음식을 파는 경쟁자가 근처에 있으면 안 좋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이른 새벽에 출근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많이 판다. 부부르(bubur)라고 하는 죽, 우리의 순대국 같은 론통(lontong), 바나나 같은 과일을 튀긴 피상 고랭(pisang goreng) 등이 아침 메뉴다. 저녁에는 주로 나시 고랭(nasi goreng) 같은 볶음밥, 닭고기(ayam) 요리 등 시간이 좀 걸리는 음식을 만들어서 판다. 목이 좋은 곳은 아침 장사하고 들어가면, 낮 장사하는 다른 사람이 나오고, 저녁에는 또 다른 까끼 리마가

자리하여 새벽까지 장사를 하는 곳도 있다. 이 모든 자리에는 점유권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아침에 까끼 리마에서 많이 먹었던 음식은 부부르 아얌과 론통이었다. 부부르 아얌은 닭죽이라고 할 수 있다. 집에서 미리 썰어온 쌀죽인데 닭고기 살이 잘게 뜯겨서 몇 점씩 섞여있다. 여기에 삶은 달걀 한개 까서 얹고 양념과 깨소금을 뿌려준다. 반찬은 꼬루뵉(kerupuk)이라는 것을 주는데 양파, 새우, 생선가루가 섞인 튀긴 과자로 새우깡이나 감자깡과 같은 짭짤한 맛이 난다. 또 론통은 바나나 잎에 싸인 쌀떡인데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그릇에 담고 밤새 끓인 육개장 같은 국물을 붓고 꼬루뵉을 얹어 준다. 부부르 아얌이나 론통은 주문하면 1분 이내에 나오니까 아침에 운동하고 오면서 빨리 먹고 출근하기에 알맞은 음식이다. 저녁에는 주로 나시고랭을 먹었다. 달구어진 솥에 식용유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날달걀 한 개를 깨어 넣고 야채와 함께 볶다가 밥을 한그릇 넣고 갖은 양념과 함께 센 불에 볶아 낸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메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포장마차의 이름이 왜 ‘까끼 리마’일까 궁금했다. 까끼(kaki)는 ‘다리’라는 말이고 리마(lima)는 ‘다섯’이니 ‘다리가 다섯’이라는 뜻인데 암만 봐도 바퀴는 세 개 밖에 안 보인다. 아하 그렇구나! 장사를 시작하려고 이 ‘까끼 리마’를 주인아저씨가 뒤에서 밀면서 오던데, 아저씨의 다리 두 개가 더 있지 않는가? 이들은 장사를 하여 벌어먹고 생활하는 고단한 삶이지만 이 포장마차와 자신을 한 몸으로 여기고 다리도 합하여 세어서 이름을 지었구나. ‘까끼 리마’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숨어있는 참으로 정겨운 일터이다.

인도네시아 고용허가제 근로자 발대식



2018년 7월2일(월) 10:00~11:30까지 인도네시아 남부 Ciracas에 소재한 KITCC(Korea-Indonesia Technical & Cultural Cooperation Center)에서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를 통해 한국으로 출발하는 370여명의 근로자 발대식 행사가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근로자들의 장도를 축하하기 위해 주인도네시아 김창범 대한민국 대사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송출보호청(NBPPIOW) Tatang Budie Utama Razak 사무총장 및 Teguh Hendre Cahyono 부청장, 최종윤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센터장과 반동 등 인근지역의 송출지청장 등이 대거 참석하였다.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ISO 인증을 받은 외국인력 고용허가 시스템이며, 이 제도를 통해 한국으로 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차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2004년 이래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76,000여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년 7월 현재, 약 30,000명의 근로자가 한국에 체류하여 한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인니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얻은 수입과 경험을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에까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매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5,000여명의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출국하고 있으며, 오늘 한국으로 출

발하는 370여명의 근로자들은 그 동안 한국어시험, 기능시험 등 어려운 선발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기업에 고용이 확정된 우수한 인력들이다.

근로자들은 한국어·기능·면접 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된 후, 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체결 등의 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사전교육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출국하게 된다.

김창범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는 행사에 앞서 강의장, 식당, 기숙사 등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위한 시설들을 두루 둘러보았으며, 이어 발대식에서 인니어 인사말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한국에 가게 된 데 대하여 환영과 축하를 전하고 “오늘이 모두에게 희망찬 터닝포인트가 될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 “인니근로자들은 한국 사업발전의 동력이고, 한국- 인도네시아 양국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존재이며, 나아가 인니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와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여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하여 인니근로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 KITCC는 2008년 한국이 인니의 기능발전을 위해 KOICA ODA로 설립·기증한 훈련시설이다.

(제공: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KOICA, 인니 전 파견인력 대상 2018 안전교육훈련 실시

현실감 있는 훈련으로 KOICA 파견인력들의 안전의식 제고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이미경)은 2018년 7월 6일(금) 자카르타 소재 비다까라 호텔(Hoteal Bidakara)에서 KOICA 인도네시아 전체 파견인력 대상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금번 훈련에는 김창범 주인도네시아대사를 비롯하여 오기운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봉사단원 및 자문단, KOICA 사업 수행 파견인력, 사무소 직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였다.

김창범 주인도네시아대사는 6일 격려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KOICA 파견인력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금년 8월 중 개최 예정

인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기간 중 각 개인의 신변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금번 안전교육훈련은 비상모의대피훈련도 함께 실시되어 더욱 현실감 있는 훈련이 되었다는 평이다. 모의대피훈련은 실제 상황 같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주어진 후 국별로 수립된 비상대피도를 따라 주재국 내 최종 집결지 까지 모이는 훈련으로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비상상황에 대비해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었다. 또한, 주재국 내에 자주 발생하는 위협요소 분석 및 사무소의 대응방안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파견인력 간 더욱 긴밀한 대비책을 구상 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응급처치훈련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교육을 통해 개인의 신변 안전 의식 역시 제고 할 수 있었다.

향후 매년 정례화(연 1회) 될 안전교육훈련은 참여자들의 건의사항 및 피드백을 통해 더욱 현실감 있고 주재국 상황에 맞는 훈련이 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파견인력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공: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이명호 공사 겸 총영사 송별회



재인도네시아 양영연 회장은 7월 24일, 자카르타 시내 음식점에서 귀임하는 이명호총영사의 송별회를 열었다.

이 자리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그 동안 ‘발로 뛰는 영사상’을 수상하는 등 한인동포들과 소통에 힘썼던 이총영사와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한인회 한인문화연구원 (www.ikcs.kr)

53회 열린강좌

바디토크, 나의 몸 디자인

인도네시아 기후·생활에 맞는 근력 및 스트레칭(대나무 활용)

일시: 8월 14일 (화) 10:00-12:00

강사: 이승아

- (사)국제시니어협회장
- 총신대 평생교육원 책임교수
-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심사위원 외
- 출강: 안산대, 서일대, 경기대 외

*신청: 밴드 <http://band.us/n/afa9TdTcybG90>

(SMS/KT) 083878347811 / 08161909976

*회비: 5만Rp (비회원 10만Rp)

*장소: 한인문화연구원(한인회문화회관 1층)

Jl. Gatot Subroto Kav.58 (Korean Embassy, Rumah Sakit Medistra 사이)

323회 문화탐방

* 그림을 읽어드립니다 *

독립 73주년 특별 전시회

▶ 일시: 2018년 8월 25일 (토) 10:00-15:00

▶ 집결: 국립갤러리 Galeri Nasional

Jl. Medan Merdeka Timur No. 14, Gambir, Jakarta Pusat, 021-34833954

▶ 탐방지: 국립갤러리, 투쟁박물관, 네델란드예술관,
독립선언문박물관, 인도네시아스타박스(Bakoel Kopi)

▶ 신청: (SMS/KT) 081-875-6217 / 0838-7834-7811

밴드댓글 <http://band.us/n/aca9U1KeM4ndq>

▶ 인원: 15명 *회원 우선(연회비 30만루피아)

▶ 회비: 회비: 30만루피아(비회원 35만) 점심 등 일체 포함



한국에서의 방학생활



(학생기자 JIS 신재우)

매년 6월 초에서 8월 초까지 JIS 자카르타 국제학교 학생들은 긴 여름 방학을 보낸다. 이 방학 동안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에 간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에 생활하면서 학생들은 두 나라의 차이점을 많이 느끼며, 장단점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1. 음식

한국에 가자마자 우리들이 가장 생각 나는 것은 음식이다. 한국의 음식문화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의 차이를 바로 느낄 수가 있다. 특히 한국에는 밤에도 배달을 시킬 수 있어서 인도네시아와 달리 어느 때고 원하는 음식을 사먹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자유 때문에 살이 찐다는 단점도 있다는 것이다.

2. 교육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에 놀러가기 위해서 가기 보다는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간다. 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다양한데, 주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으며, 그것들은 SAT, TOEFL,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두가 알듯이 다르게 생활한다. 그들은 모두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한국에서는 수능 하나를 이용하면서 대학에 합격하는지를 결정을 하지만, JIS같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학생들은 학기 동안에 성적과 스펙들과 SAT나 TOEFL같은 학업능력 시험들을 이용해서 대학에 입학하는지를 결정을 한다. 수능에 대한 장단점들이 있다. 장점은 바로 수능이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때 보는 시험이어서 공부를 늦게 시작해도 시험만 잘 보면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바로 수능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을 위해서 보통은 새벽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 대부분의 JIS학생들은 이러한 단점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사는 것이 더욱 더 편하게 느껴진다.

3. 환경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또다른 차이점은 바로 환경이다.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여름밖에 없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에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기대하는 부분이다.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 생활한다는 것을 기대를 많이 하지만, 기대와 달리 불편한 면도 많다. 여름에는 너무 덥게 느껴지며, 겨울에는 너무 춥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거기에 한국에는 에어컨과 보일러 비용이 인도네시아보다 더욱 더 비싸서 에어컨을 켜는 것이 전기료 걱정으로 큰 낭비가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활동도 다양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바다에 가서 레크레이션 활동들을 즐길 수 있고 겨울에는 스키, 썰매 등의 활동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과 단점들을 봤을때, JIS학생이면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학생으로서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이 살기에 좋은 곳이라고 느껴진다. 나처럼 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에게는 어른이 되어 주거지를 선택할 때 어릴 적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 무엇을 고르냐에 따른 책임도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 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 대기)

■전화번호 안내

시 내.....	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	105, 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 전화.....	001, 008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	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	801
Toll Road	
교통사고.....	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	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	021)692 8515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영사과.....	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	0812 1960 308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	021)521 2180
(터미널3).....	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	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	021)5721 381~3
(공항).....	021)5591 3229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021)384 4188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	123
전화고장 문의.....	147
수도고장 문의.....	021)57986555

“2018 아시안게임” 지원 후원금

18. 08. 06까지 납입일 순

구분	후원인	직책	회사명	납부금액 (루피아)
1	양영연	회장	PT. TAEWON INDONESIA	100,000,000
2	서영률	회장	PT. PRATAMA ABADI INDUSTRI	100,000,000
3	신기업	대표	PT. HANINDO EXPRESS UTAMA	100,000,000
4	전민식	대표	PT. POWERTECH INDONESIA	100,000,000
5	민주평통자문회의 동남아 남부협의회(인도네시아) 송광종회장 외 자문위원			100,001,000
6	강덕재	회장	PT. LEMBUSWANA PERKASA	100,000,000
7	신만기	대표	PT. PARKLAND WORLD INDONESIA	100,000,000
8	송창근	회장	PT. KMK GROUP	100,000,000
9	김영율	회장	PT. SUNG CHANG INDONESIA	50,000,000
10	이종현	대표	PT. LEO KORINSIA	100,000,000
11	김준규	대표	PT. CIPTA ORION METAL	100,000,001
12	조규철	대표	PT. DONG JUNG INDONESIA	100,001,000
13	강호성	대표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100,000,000
14	최덕열	대표	PT. SHINTA WOO SUNG	50,000,000
15	이호덕	회장	PT. VICTOR JAYA RAYA	100,000,000
16	승은호	회장	PT. KORINDO GROUP	100,000,000
17	박태용	행장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00,000,000
18	몽제협의회(KOGA) 총 *14업체			530,000,000
19	서영석	법인장	PT. CHANG SHIN INDONESIA	100,000,000
20	정용완	대표	PT. HUNG A INDONESIA	100,000,000
21	이화수	행장	BANK HANA INDONESIA	100,000,000
22	김우재	회장	PT. KOIN BUMI	50,000,000
23	김광현	법인장	PT. HWA SEUNG INDONESIA	50,000,000
24	강희중	대표	PT. TECHNOLOGY	100,000,000
25	마용도	회장	PT. YONG MA	100,000,000
26	김도진	은행장	IBK 기업은행	100,000,000

※ KOGA 총 14업체 : 1. PT. BUSANA PRIMA GLOBAL 박재한회장 (1억) / 2. PT. MUARA TUNGGAL 최중섭사장 (5천만) / 3. PT. DOOSAN CLOBAL 배도운사장 (5천만) / 4. PT. STAR CAMTEX 김주철사장 (5천만) / 5. PT. JM TECH 문영권사장 (5천만) / 6. PT. INCORDAN 하민수사장 (5천만) / 7. PT. DASAN 서기선사장 (5천만) / 8. PT. HANSOL 김선법인장 (3천만) / 9. PT. SUNGBO 이진수사장 (2천만) / 10. PT. ANUGERAH ABADI 유웅근사장 (2천만) / 11. PT. PAN-PACIFIC 이규백부회장 (2천만) / 12. PT. GORI 이세호사장 (1천만) / 13. PT. ASRINDO 김건우사장 (1천만) / 14. PT. JA JAKARTA 정해용법인장 (2천만)

※ 8월7일(입금확인일)이후의 후원금 납부 명단은 9월호에 게재됩니다.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당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한인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웨어)과 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한인뉴스는 <소개합니다> 코너를 통해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의
인사동정 및 새로 연 사업체를 무료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인뉴스 편집국 (Tel. 021-521-2515/

haninnewsinni@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정성껏 실어 드리겠습니다.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관	2967 2580
주아세안대한국대 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 연 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58	7650 6040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교(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람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람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URI TOUR & TRAVEL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Kataal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형사 · 민사 · 세무 · 투자 · 국적

김종성(변호사/ 대표Partner): UI대 법대졸, UI대 법대 대학원졸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매틱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룸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킴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마루노래방	027 2831 869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	----------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존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항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2018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 & 집행부>

박형동 회장/한바패 회장

채영애 감사

사공경 고문

강희중 자문

신돈철 자문

이수진 수석 부회장 겸 사무국장

허민경 사무차장/스트링 오케스트라

김경애 전시 수석부회장/한지공예

이은수 전시부회장/미협

김혜정 전시부회장/헤리티지

정재익 전시부회장/서협

김영희 공연 수석부회장/아르떼 여성합창단

김일순 공연부회장/한바패

박의태 공연부회장/색소폰

박정욱 공연부회장/극동방송 합창단

손창진 공연부회장/아버지 앙상블

정방울 공연부회장/한국무용

<17개 소속 단체장>

극동방송 합창단 단장 : 신정일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루시 플라워 회장 : 최정순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서예협회장 : 송판원

스트링오케스트라단장 : 허민경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 채영애

아버지앙상블단장 : 변영극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월화차 회장 : 이춘순

음악협회 회장 : 채영애

한국무용 단장 : 정방울

한바패 회장 : 박형동

한지공예 단장 : 김경애

헤리티지코리아섹션 회장 : 이수진

0878 5480 4815

0811 876 547

0816 1840 762

0812 1316 2064

0816 745 384

0815 9101 898

0811 9005 639

0878 8333 3359

0816 745 384

0811 1636 210

0811 149 586

0815 1941 1756

0816 1300 210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고주몽 7279 6709
8984 1000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평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평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0254-848 4111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씨티서울 515 0415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유미 720 7464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평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파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평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본가 (족자카르타) 027 4436 1301
치맥 (족자카르타) 027 2831 440

ICHTHUS SCHOOL PRIMARY | SECONDARY PRE UNIVERSITY

A Christian School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PEN HOUSE
Ichthus West: Saturday, 25 August 2018
Ichthus South: Saturday, 1 September 2018

For more information:
South Campus | T: +6221 7590 8820
West Campus | T: +6221 581 2228
www.ichthusschool.com

ACCREDITED: ACSI, IB, NCA CASI, SACS CASI, WCA CASI, WCA CASI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시티안경원	726	5009
-------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18	423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쑤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JAC Recruitment	315	9504
-----------------	-----	------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쑤찌까랑)	0813	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 게스트하우스	0858	1442 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쑤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아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쉴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1	888 9609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에세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골라빠가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발리 (지역번호 0361)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L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2018 재인니 대한체육회

구분	직책	성명	휴대폰
집행부	회장	강희중	0816-798-221
	사무총장	방진학	0811-198-282
	감사	배응식	0811-993-7651
	사무차장	최석일	0811-888-9609

협회	검도협회장	강희중	0816-798-221
	탁구협회장	곽봉규	0815-1410-4167
	볼링협회장	김송정	0816-716-293
	용무도협회장	김태화	0811-188-2938
	골프협회장	한현봉	0811-111-5800
	스쿼시협회장		
	태권도협회장	방진학	0811-198-282
	축구협회장	전용무	08111-009-252
	테니스협회장	정영규	0821-1032-624
	야구협회장	이창균	0815-1443-0000

지역한인회 주소록

현재 2018.1.23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발리한인회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부회장	편 성 호	0812-389-0694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총무	손 민 석	0858-5732-0669
2	반둥한인회	회장	엄 정 호	0812-201-8309
		수석부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오 명 근	0812-115-1004
		사무 차장	남 상 일	0812-2400-0303
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사무국장	정 규 철	0812-701-6090
		총무	이 상 구	0821-7356-8405
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상 철	081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카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7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회장	배 춘 식	0811-332-4001
		수석부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총장	김 태 현	0818-321-332
		수석총무	우 상 화	0817-500-1042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회장	김 소 웅	0811-278-8909
		사무총무	이 승 현	0811-978-0282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배 석 기	0816-1844-165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한인회	회장	문 창 윤	0822-2220-8123
		수석총무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망그랑반뜰한인회	회장	오 세 명	0816-187-8582
		사무국장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	이 재 호	0811-444-190
		총무	한 정 곤	0811-419-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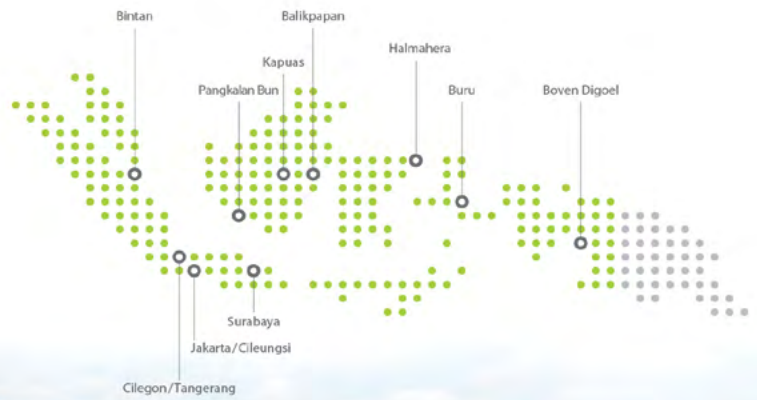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THEP

TRASINDO

SAMINDO

PSG

CEP

2018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SAMTAN

**GLOBAL LEADING COMPANY
IN RESOURCE & ENERGY**

SBS

DONGHAE

SIMS

MINTEC

SRT

SRT

ABM

KIDECO